

2026 Issues & Themes ABCDEFGG



CONTENTS

PART 1. A is Automation

① Why 2026	5
② Why Automation	6

관련기업

코원테크(282880)	12
--------------	----

PART 2. B is Blockchain

① Why 2026	14
② Why Blockchain	15

관련기업

헥토이노베이션(214180)	21
-----------------	----

PART 3. C is Cyber security

① Why 2026	23
② Why Cyber security	24

관련기업

지니언스(263860)	30
--------------	----

PART 4. D is Diagnosis

① Why 2026	32
② Why Diagnosis	33

관련기업

오상헬스케어(036220)	36
----------------	----

PART 5. E is ESS

① Why 2026	38
② Why ESS	39

관련기업

신성에스티(416180)	44
---------------	----

PART 6. F is Foldable

① Why 2026	46
② Why Foldable	48

관련기업

파인애플(441270)	53
--------------	----

PART 7. G is Glass substrate

① Why 2026	55
② Why Glass substrate	56

관련기업

필옵틱스(161580)	64
--------------	----

SUMMARY

2026년 유안타 리서치 이슈&테마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증권 리서치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준입니다.

예년보다 조금 일찍 내년 유망 이슈 & 테마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당사 8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의 타이틀이 [5천P 가는 길: 국민펀드 ABCDEF+G]로 A는 AI, B는 BIO, C는 Contents, D는 Defense, E는 Energy, F는 Factory, G는 Governance 였습니다. 여기에서 착안해 저도 ABCDEFG로 제목을 정하였고, 스몰캡에 맞게 A는 Auto, B는 Blockchain, C는 Cyber security, D는 Diagnosis, E는 ESS, F는 Foldable, G는 Glass substrate로 정했습니다.

- A. Automation, 동일한 업무의 반복은 자동화를 통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자동화 기계는 스스로 인지-사고-판단-행동하는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AMR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기업으로 코원테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 B.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등이 확대됨에 따라 블록체인 역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의 주요기술은 분산원장, 암호학 등으로 가상자산하에서는 지갑(Wallet)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기업으로는 월렛원을 인수한 헥토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 C. 사이버보안, SK텔레콤 해킹사고로 인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예스24, KT 등에서 연이어 해킹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사이버보안이 적용에 대한 당위성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업으로는 EDR 국내 1위 기업인 지니언스를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D. 진단,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승인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질병/질환으로 인해 유통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상헬스케어가 있습니다.
- E. ESS, 글로벌 ESS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2차전지 배터리 3사 역시 ESS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로 인해 미국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협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기업으로 신성에스티가 있습니다.
- F. 폴더블, 애플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2026년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매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몰캡 기업으로는 국내와 중국향 스마트폰에 내장хин지를 공급하는 파인애플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G. 유리기판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고객사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고자 하는 명분이 명확하며, 기판기업들은 고객사에 맞는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필옵틱스가 시장의 Key Player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utomation: 자동화의 최종은 로봇!



I. Why 2026

- 해외-한미 관세협상

2025년 7월 관세협상 타결. 한국은 미국에 총 4,500만달러 규모의 투자 및 에너지 구매를 약속 ↔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인하
2026년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집행 및 확대 전망(2,000만\$-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1,500만달러-조선)

- 국내-자동화 가속화 유발 요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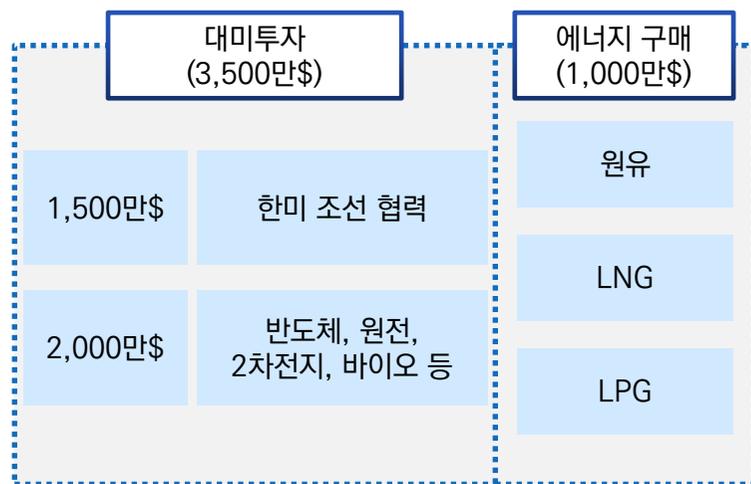
1)노란봉투법: 하청/플랫폼 사업자도 사용자 책임 인정 → 수익성 악화 → 자동화 대체를 통한 수익성 개선 추진 예상

2025년 9월 9일 공포 → 2026년 3월 10일 시행

2)중대재해처벌법: 인명사고에 대한 리스크 요인 부각 → 자동화를 통해 인력 대체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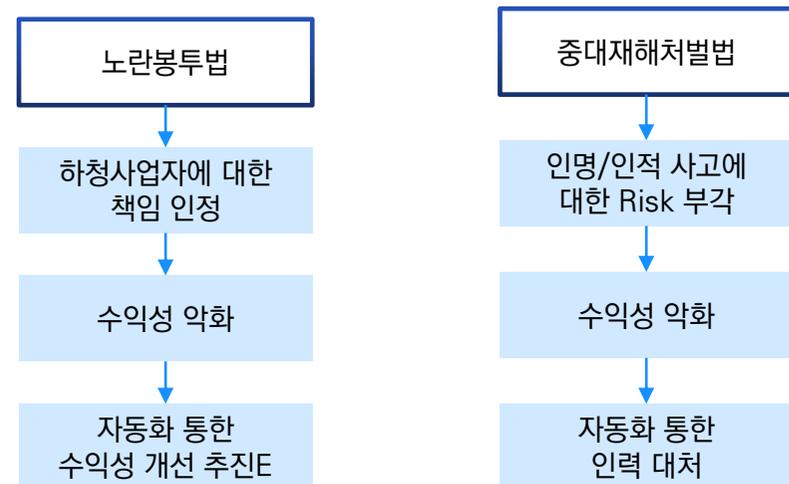
2021년 1월 26일 제정→2022년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 대상 우선 시행 → 2024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

[차트1] 한미 관세 협상: 미국에 총 4,500만달러 투자 및 에너지 구매 약속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자동화 유발하는 법적 제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Automation

- 인건비 증가 추세 지속

최저임금: 2025년 시간당 1만원 상회(2020년 8,590→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

월임금총액: 2020년 318만원→2024년 373.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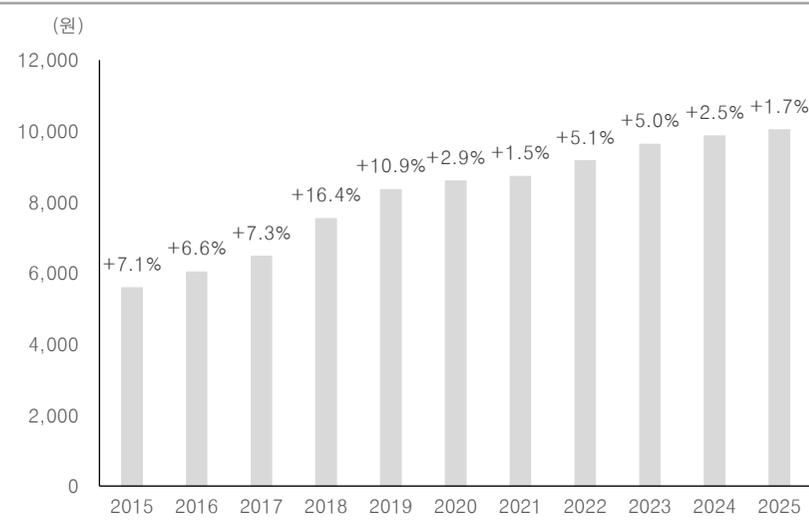
→광업/제조업 출하액 대비 월임금총액 증가율 및 최저임금 증가율 상회

- 인건비에 민감한 국내 사업 구조

높은 제조업 비중(2023년): 한국 27.6% VS. OECD 평균 15.8%, 독일 20.1%, 일본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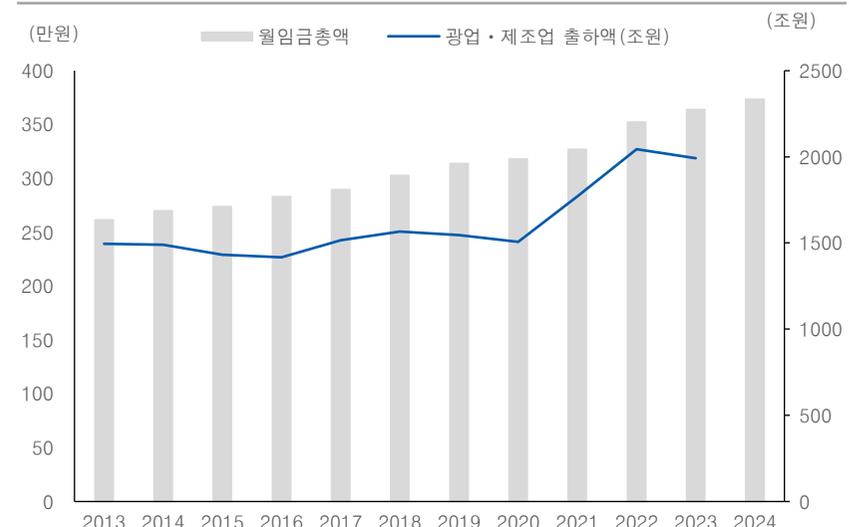
높은 자영업자 비중(2022년): 한국 23.5% VS. 미국 6.3%, 캐나다 7.2%, 독일 8.8%, 일본 9.6%

[차트3]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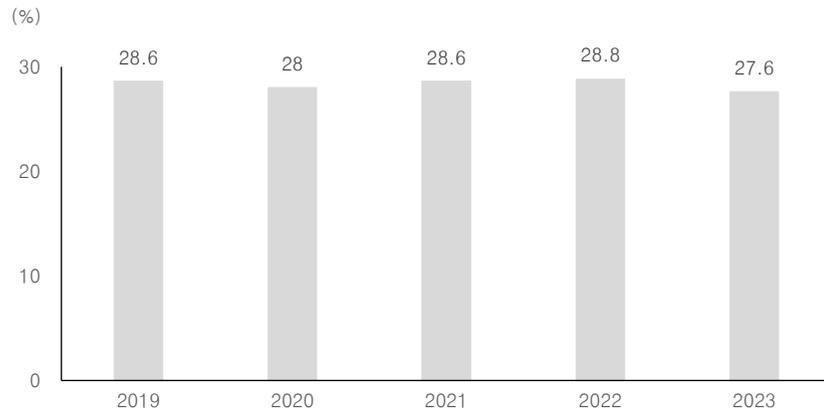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월임금총액 증가율 > 광업/제조업 출하액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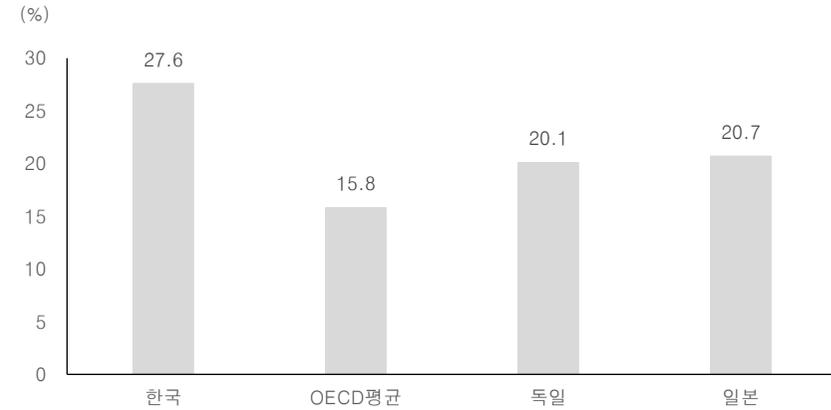
자료: KOSIS, 지표누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GDP 대비 국내 제조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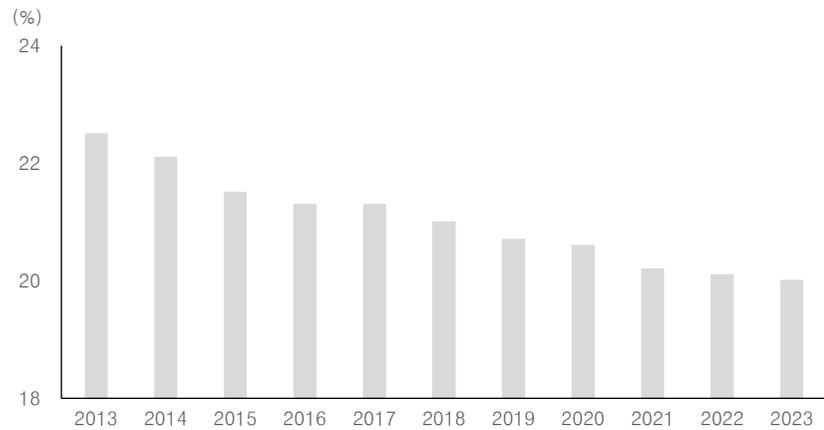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GDP 대비 제조업 비중: OECD 평균비 11.8%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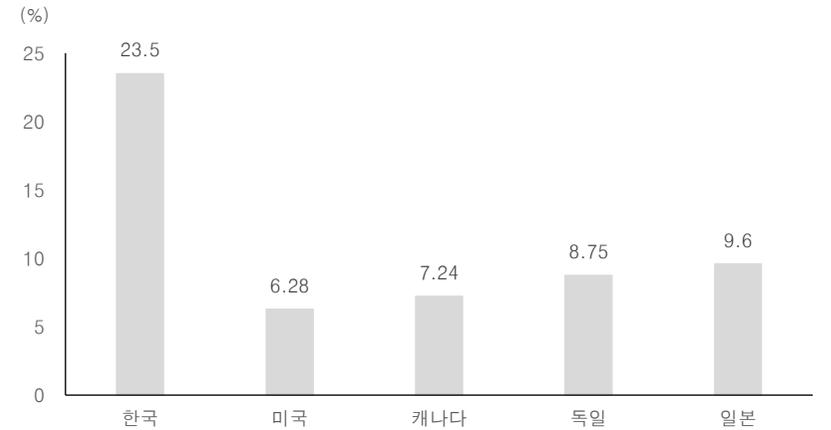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7] 연도별 국내 자영업자 비중: 감소세이지만 20% 이상 유지



자료: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8] 국내 자영업자 비중: 글로벌 주요국대비 2배 이상 높은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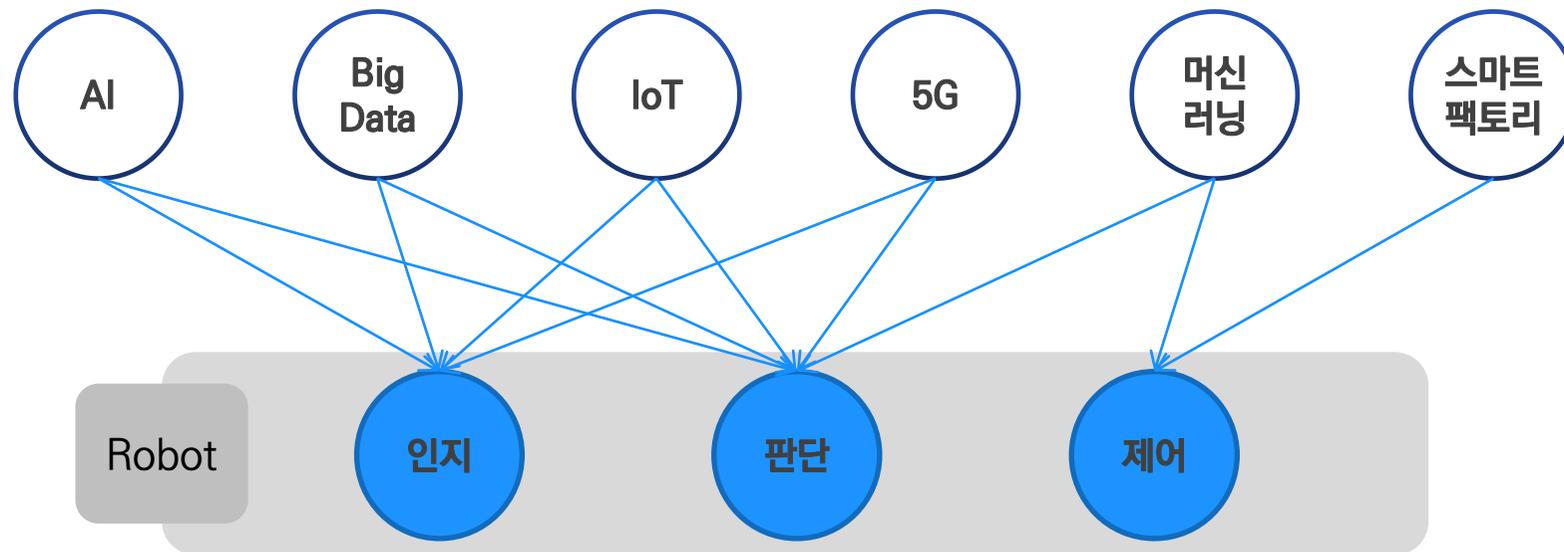


자료: KBB,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Robot의 발전요인 ①기술의 발전

- 자동화의 목적: 사람의 일을 대체 ≙ 로봇의 정의
- 로봇은 외부환경을 인식(인지) 및 상황을 판단, 자율적으로 작동(제어)하는 기계
AI, Big Data, IoT, 5G, 머신러닝 등의 기술 개발로 외부환경의 인지, 판단 정확도 및 속도 향상
스마트팩토리 기술 개발로 작동(제어) 기술 능력 향상

[차트9] 기술의 진보로 인해 로봇산업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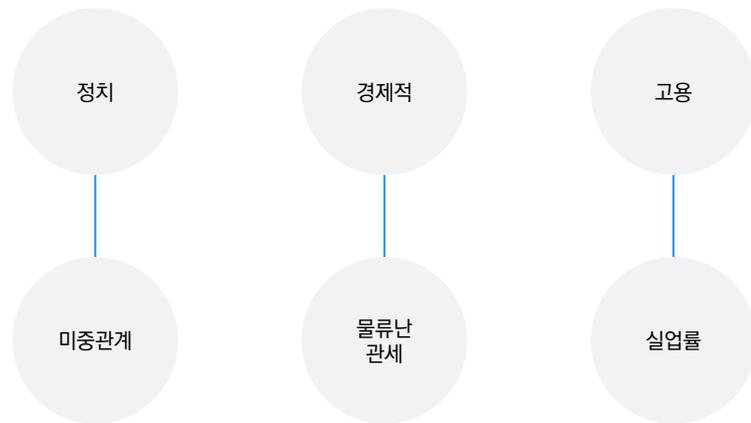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Robot의 발전요인 ②Reshoring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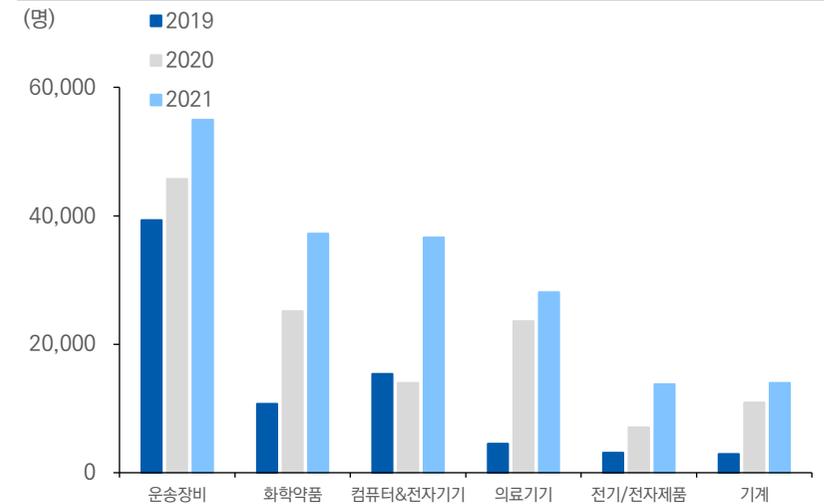
-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의 본국 회귀
인건비, 운송비 등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도 비용 상승의 문제에 직면, 본국으로 회귀
- 미국, 독일 등 다수의 국가들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중
미국, 정치적(미중관계), 경제적(물류난, 관세), 고용(실업률)의 영향에 기인
- 리쇼어링을 통해 생겨난 사업별 일자리: 운송장비, 화학약품, 컴퓨터&전자기기 등
공통점: 대규모 자본이 투입, 대규모 인력이 필요 → 로봇 적용 가능성 높은 Industry

[차트10] 미국의 리쇼어링 추진 요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11]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생겨난 미국 내 산업별 일자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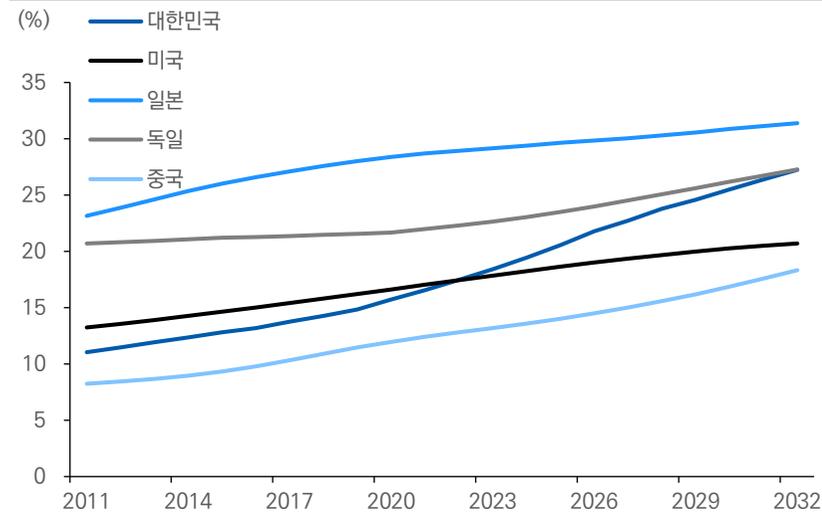


자료: Reshoring Initiativ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Robot의 발전요인 ③사회구조의 변화

- 생산성 저하 우려감은 로봇 도입의 당위성 부여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3D 직종 기피 현상 → 제조업 노동인구 감소 ⇒ 로봇 수요 증가
최저임금 상승 → 기업의 수익성 악화 → 로봇 수요 증가
- 독일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낮은 출산율, 고임금 체계 등으로 제조 경쟁력 둔화 우려 → Industry(인더스트리) 4.0 정책 추진
Industry 4.0: ICT와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 혁신 추진. 기계와 사람, 인터넷 서비스가 상호 연결된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
Industry 4.0의 구성 기술: IoT,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빅데이터, 3D 프린팅, AR, 로봇

[차트12] 주요국 고령화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세계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13] 독일 Industry 4.0 구성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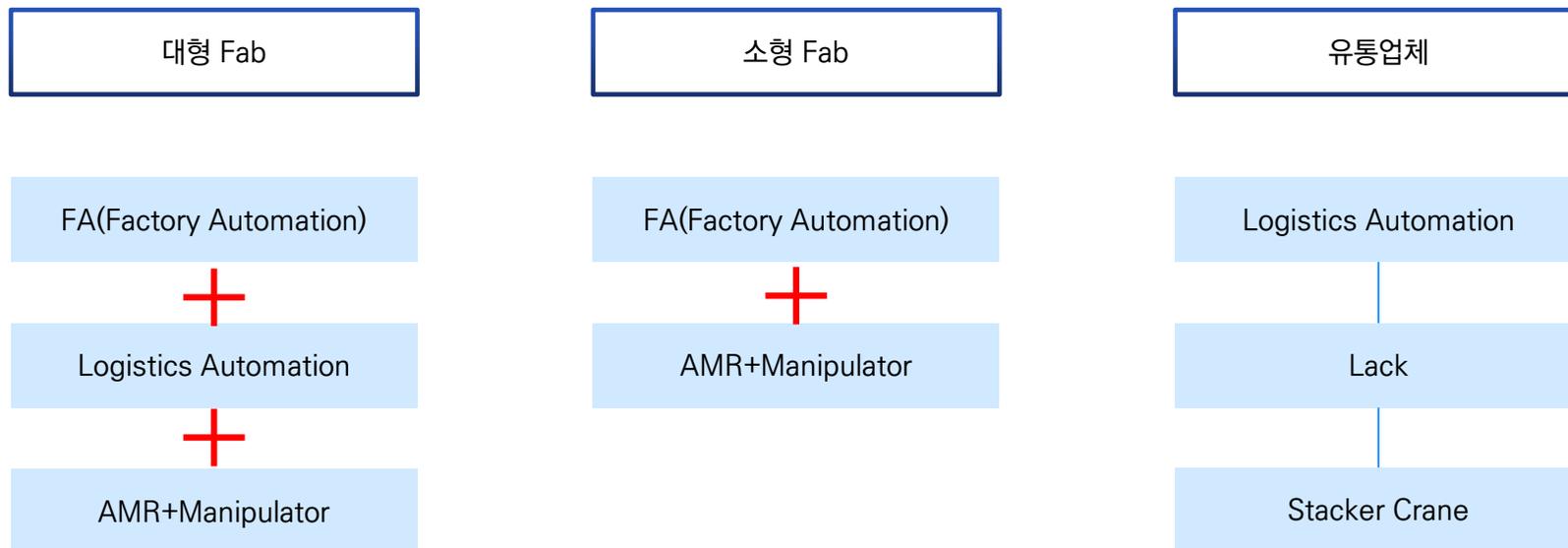


자료: BCG(보스턴컨설팅그룹),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V. Robot 기업 선정 조건

- 국내 제조업 &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 고려시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AMR+Robot Arm(Manipulator) 결합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
- 대규모 Fab에서는 공장자동화+물류자동화의 결합 선호
- 소규모 Fab에서는 물류자동화+Robot Arm 제품 선호
- 유통 등 재고 보유 기업에서는 높은 부지비용을 감안시 Lack+Stacker Crane에 대한 제품 선호

[차트14] 기술의 진보로 인해 로봇산업 성장



스몰캡



권명준

02 3770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투자의견	Not Rated (M)
목표주가	- 원 (M)
현재주가 (10/1)	15,70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1,801억원
총발행주식수	11,469,37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43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255,917주
52주 고/저	18,730원 / 11,310원
외인지분율	1.20%
배당수익률	1.24%
주요주주	이재환 외 11 인 21.23%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28.1	29.6	3.3
상대	18.9	20.2	(6.7)
절대 (달러환산)	27.2	25.3	(3.7)

코윈테크(282880): AMR & 영역확대

- 스마트팩토리 필수요소인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
- AMR(자율이송로봇)을 글로벌 2차전지 기업에 납품 중
→Heavy Material & Accuracy에 가장 보유
- 연료전지, ESS, 자동차OEM 등으로 확대 ing
2025년 3월 차세대 연료전지 물류 자동화시스템 수주
2025년 9월 글로벌 ESS 제조기업 대상으로 로봇 시스템 수주
글로벌 자동차 OEM으로 확대 추진
- 사업 확장을 위한 준비
아이플러스모봇과의 MOU: 한&중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MRS를 통해 AMR 고도화, OHT&OHMS를 통해 공간 효율성 상향 준비 중

Forecasts and Valuation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1,063	2,012	3,360	2,444
증가율	134.1	89.3	67.0	-27.3
영업이익	66	148	228	36
영업이익률	6.2	7.4	6.8	1.5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56	26	118	162
지배주주 귀속 EPS	247	1,086	1,415	0
EPS증가율	-53.0	339.7	30.3	-100.0
PER	43.7	103.6	27.3	13.6
PBR	2.3	2.0	2.0	1.2
EV/EBITDA	27.8	15.2	11.6	32.6
ROA	3.6	1.0	2.9	3.6
ROE	5.5	2.2	8.1	9.5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Blockchain: Wallet을 주목!



I. Why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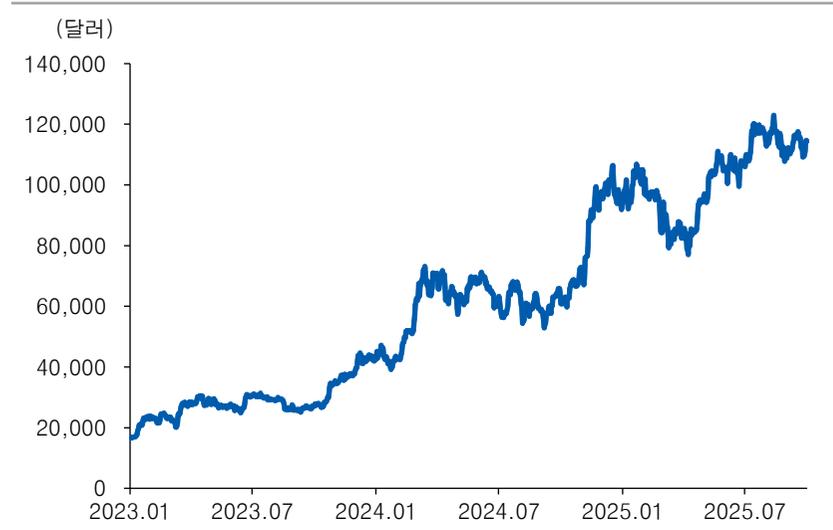
-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지속

- 국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2025년 4월 국회 발의 → 2H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 통과시 대통령 공포 → 6~12개월(시행령, 세부규정 마련) 이후인 2026년 시행 가능성 有

입법 추진 배경: ①디지털자산의 빠른 성장세, ②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도입 → 신성장동력 확보 & 금융주권 확보 & 투자자보호

[차트15] 비트코인 주가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16]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제도권 내로 디지털자산 편입 → 법적 보호 체계 강화 통한 투자자 보호
2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기반 마이크로 경제 시스템 → 지역화폐, 증권형 토큰 등 연계 가능
3	비은행권 혁신 허용 → 일정요건 충족시 핀테크 등 민간기업 시장 진입 가능
4	가드레일 방식 규제 → 자율적 생태계 조성 유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Block-Chain ①개념

-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
거래 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 서버가 아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
- 거래과정
 - ①거래생성: 사용자가 블록체인 지갑을 통해 거래 요청을 생성. 거래는 개인키로 전자서명되어 위조 불가
 - ②거래전파: 생성된 거래는 P2P 네트워크로 전파. 여러 노드(참여자)가 거래를 받아 로컬 메모리풀(Mempool)에 저장
 - ③거래검증: 네트워크 노드들이 해당 거래가 유효한지 검증(잔액, 전자서명, 중복지불 여부)
 - ④블록 생성: 채굴자 또는 검증자가 여러건의 유효한 거래를 모아 블록을 생성
 - ⑤합의: 새로 생성된 블록이 네트워크 전체에 전파. 다른 노드들이 블록의 유효성 검증, 다수의 합의를 통해 체인에 추가. 합의종료시 승인
 - ⑥블록체인에 기록: 승인된 블록은 블록체인 원장에 영구적으로 기록. 누구나 열람 가능하지만 수정 불가능
 - ⑦거래완료: 수신자는 송금된 금액이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차트17] 퍼블릭 비트코인 VS. 프라이빗 비트코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Block-Chain ②종류

- 블록체인 종류① 퍼블릭 블록체인
탈중앙화. 제한없이 불특정 다수 누구나 운영 및 참여 가능
누구나 데이터 검색 가능→투명성 높음
다수의 참여자 → 네트워크 확장이나 수정 등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우며, 거래속도가 느림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블록체인 종류②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정 네트워크 상에서 만든 인증방식을 통해 검증된 사람만 참여 가능. 폐쇄적이며 권한 집중 →투명성 낮음
제한적인 참여자 → 네트워크 규칙 도는 거래 내용 수정이 가능, 업그레이드 및 저정도 가능
예) 리플, 아이콘 등

[차트18] 퍼블릭 블록체인 VS.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분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읽기 권한	누구나 열람 가능	허가된 기관/담당자만 열람 가능
참여자 구분	불가능	권한부여, 권리 제한 가능
속도	느림	빠름
분산화	가능	가능
탈중앙화	높음	낮음
업그레이드	어려움	가능
대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리플, 아이콘 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Block-Chain ③필요성

- 블록체인의 기술적 필요성

보안: 분산 원장 통해 중앙 서버, 관리자 없어도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동일한 거래 기록을 공유하고 검증 → 시스템 장애 혹은 해킹에 강함
위/변조 방지: 거래 내역이 체인 형태로 연결 & 암호화되어 있어,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변경이 어려움
투명성 & 추적성: 모든 참여자들이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데이터 신뢰성 보장

- 블록체인의 경제적 필요성

중재자 비용 절감: 은행, 결제사, 공증기관과 같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P2P 방식으로 거래 → 수수료 절감 효과
글로벌 금융 접근성 확대: 은행계좌 없이도 인터넷만으로 디지털 자산 저장 및 전송 가능
스마트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실행되는 계약 기능 → 금융, 공급망, 보험 등에서 거래비용과 시간 축소

- 블록체인의 사회적 필요성

신뢰기반 재편: 기존-기관 신뢰(은행, 정부, 기업) VS. 블록체인-기술 신뢰(암호, 알고리즘)
데이터 주권 강화: 개인정보, 의료기록, 창작물 등 사용자가 직접 통제 가능
투명한 거버넌스: 공공 행정, 선거, 기부, 물류 관리 등에서 부정/부패를 줄이고 투명성 확대

-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 영역

금융: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엔터/NFT: 디지털 자산 소유권 인증
헬스케어: 환자 데이터 공유 및 무결성 확보
공급망: 원산지 추적, 위조품 방지
스마트시티/행정: 토지대장, 투표 시스템

II. Why Block-Chain ④주요 기술

- 주요기술

분산원장 기술: 거래내역이 네트워크 전체에 분산 저장

암호화(Cryptography): 해시 함수, 디지털 서명(개인키, 공개키 기반 전자서명-위조방지), PKI(공개키 기반 구조)

합의 알고리즘: PoW(Proof of Work, 작업증명), PoS(Proof of Stake, 지분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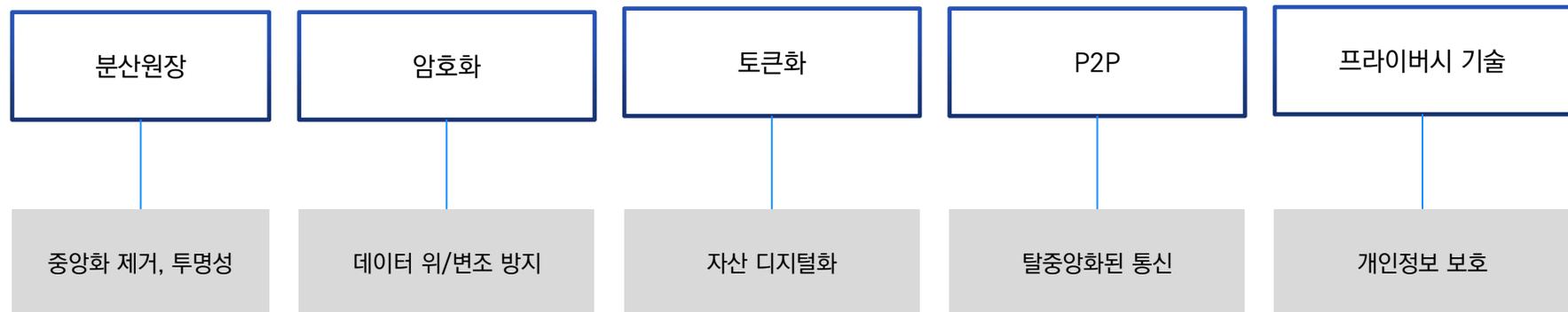
P2P 네트워크: 중앙 서버 없이 참여자간 직접 연결

토큰화: 실문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화. NFT, 스테이블코인 등도 포함

분산 저장(IPFS, Filecoin 등): 블록체인의 저장 한계를 보완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ZKP(Zero Knowledge Proof, 영지식 증명), MPC(Multi Party Computation, 다자간 연산)

[차트19] 블록체인 관련 주요 기술 및 기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Block-Chain ⑤기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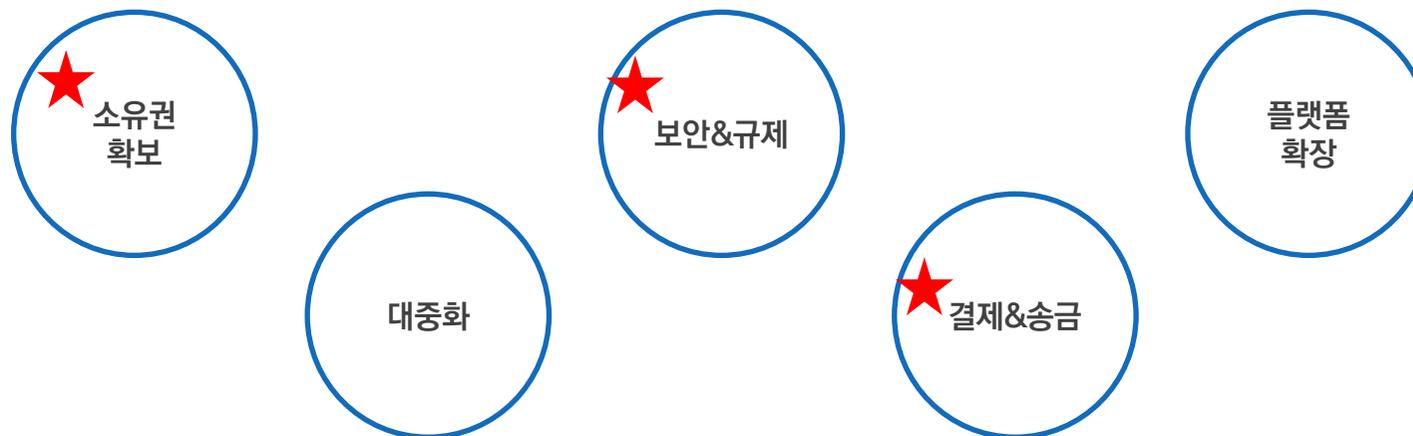


자료: Moody's Investor Servi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Wallet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자산 소유권과 통제권의 핵심
블록체인에 기록된 토큰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개인키를 가진 지갑 소유자에게 존재
즉, 지갑-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보안 및 규제
가상자산 해킹은 대부분 지갑 혹은 키 관리 취약점에서 발생
보안, 준비금, 보험 등을 의무화하여 지갑 인프라의 신뢰성 요구
- 결제와 송금의 Hub
스테이블코인, CBDC도 지갑을 통해 송금 및 결제 진행
글로벌 송금, B2B결제, 소액결제시 지갑이 은행계좌 역할 수행

[차트20] 블록체인 관련 주요 기술 및 기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권명준

02 3770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투자의견	Not Rated (M)
목표주가	- 원 (M)
현재주가 (10/2)	16,49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2,164억원
총발행주식수	13,124,613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6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96,681주
52주 고/저	18,310원 / 11,290원
외인지분율	10.80%
배당수익률	2.97%
주요주주	이경민 외 3인 38.92%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9.1	13.5	31.2
상대	1.3	5.2	18.5
절대 (달러환산)	8.3	9.7	22.3

헥토이노베이션(214180): 기대되는 월렛원 인수 효과

- 2025년 9월 월렛원(구 헥슬란트) 인수(47.15%, 92.9억원)
- 월렛원, NFT지갑 등의 서비스를 은행 및 카드사에 제공 중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확보 → 스테이블코인 등의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과거의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경험(블록체인컴퍼니)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B2C앱 RROUND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 본업 & 자회사 실적 동반 개선 기대
별도: 신규 서비스의 Q의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지속
헥토헬스케어: 마케팅 활동 강화 & 해외 진출 확대 추진에 따른 실적개선세 ing
헥토파이낸셜: 해외정산, 신규사업 성장 기대감 유효

Forecasts and Valuation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2,210	2,630	2,885	3,195
증가율	29.3	19.0	9.7	10.7
영업이익	375	356	380	489
영업이익률	17.0	13.5	13.2	15.3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211	295	228	279
지배주주 귀속 EPS	2,222	1,720	2,105	0
EPS증가율	32.3	-22.6	22.4	-100.0
PER	11.6	7.0	7.8	6.3
PBR	1.9	1.4	0.9	0.8
EV/EBITDA	2.7	2.6	0.8	-0.8
ROA	5.2	6.0	4.1	4.4
ROE	15.9	21.3	14.5	14.6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yber security: 기대되는 정책효과



I. Why 2026

- 2H25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 → 2026년 본격 도입
- 과기부 2차례에 걸쳐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이 2H25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ISEC2025(8/26일) 하반기 정보보호 종합계획 발표 계획 언급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컨퍼런스(4/17일) 하반기에 AI 시대 사이버보안 정부 전략 고도화에 대해 발표 예정
- 관련 인선 임명
8/13일, 신임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김창섭 임명 → 국가 사이버안보 주요 결정권자 인선 완료
8/26일, 대통령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김소정(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명

[차트21]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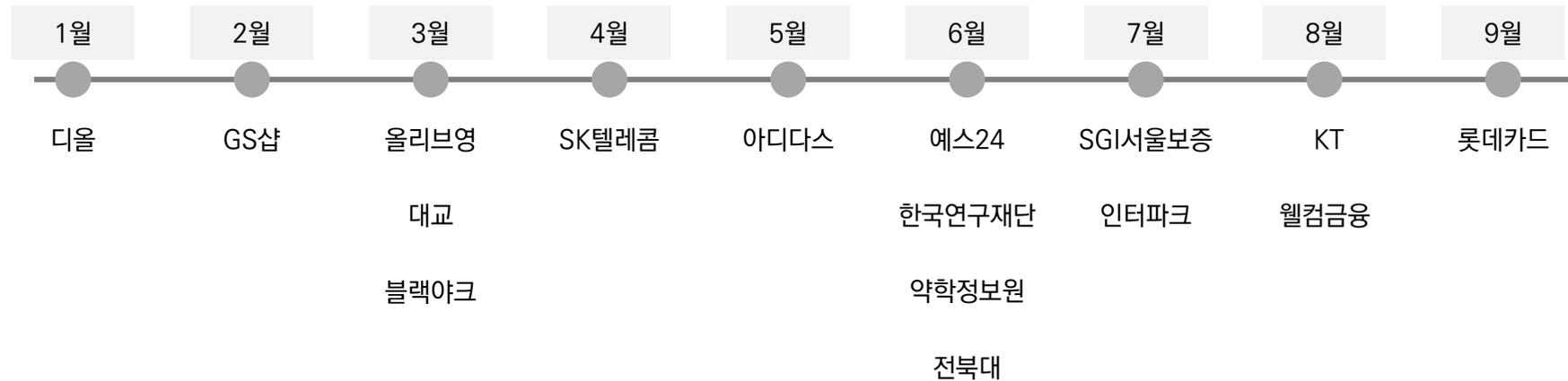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사이버 보안

- 연이은 국내 해킹 사건
 - 2025년 2월, GS리테일 홈쇼핑 업체인 GS샵 개인정보 유출(약 158만건)
 - 2025년 3월, 올리브영 개인정보(4,900건) 유출 / 블랙야크 개인정보 유출(34만건)
 - 2025년 4월, SKT 침해사고: 2,600만건 유출, 악성코드 25종 확인
 - 2025년 6월, 예스24 랜섬웨어 공격
 - 2025년 7월,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공격
 - 2025년 8월,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 2025년 9월, 롯데카드 해킹사고 발생: 1.7GB 유출

[차트22] 2025년 연이은 국내 해킹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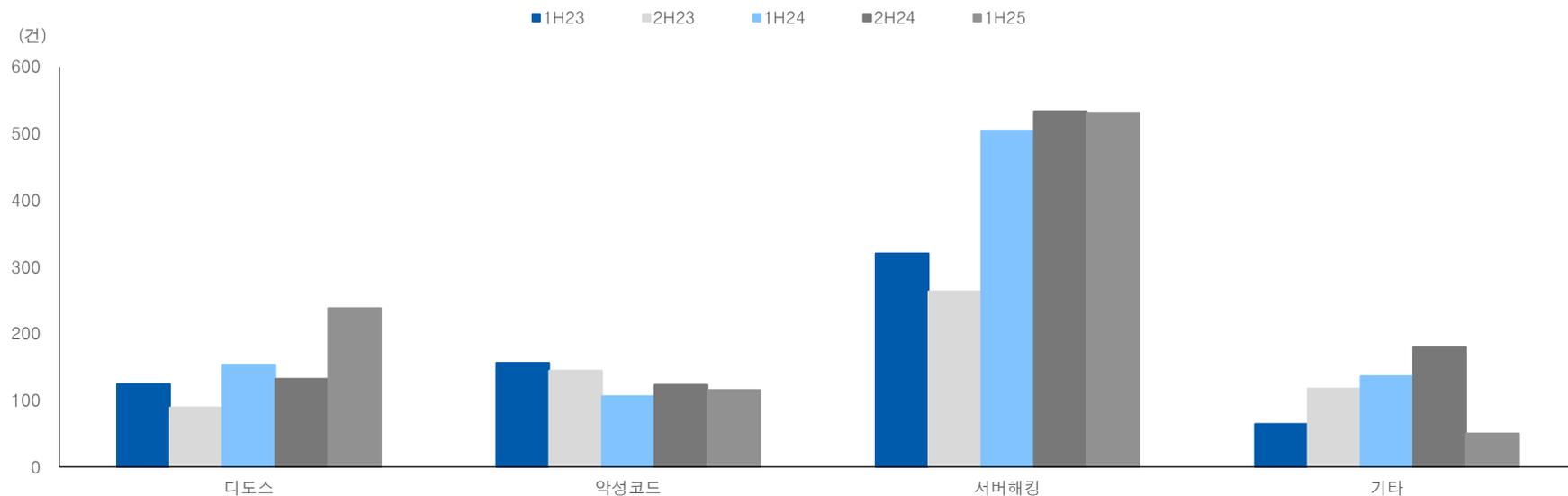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사이버 보안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 국내 침해사고 1,887건으로 전년대비 47.8% 증가
 디도스공격 +33.8%, 악성코드 -23.7%, 서버해킹 +81.3%, 기타 +74.6%
 특징1. 서버해킹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특징2. 사이버 공격 방법 다양화
- 2025년 상반기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1,034건: 1H24 대비 +15.0%, 2H24 +4.7%
 특징1. 매월 증가 중 : 1월 88건 → 2월 129건 → 3월 138건 → 4월 171건 → 5월 233건 → 6월 275건
 특징2. 디도스공격 가장 높은 성장률(80.3%), 서버해킹 비중 1H24 이후 50% 이상 유지

[차트23] 사이버 침해사고: 디도스 & 서버해킹 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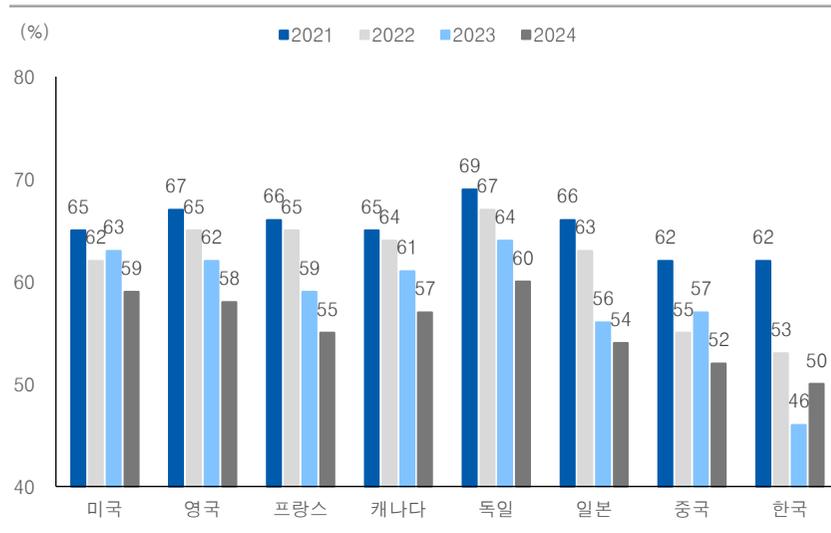


자료: 과기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①개인: 낮은 사이버 보안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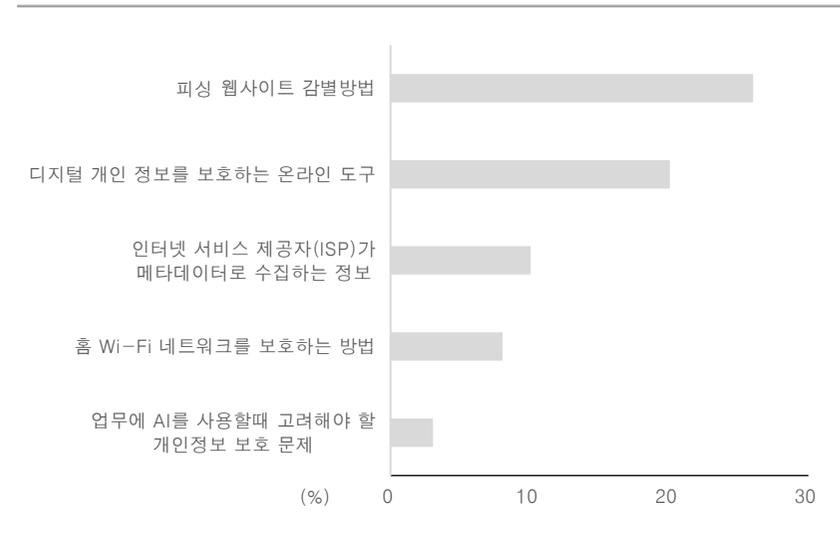
- 노드VPN의 사이버보안 인식테스트, 디지털 습관, 위험 수용성, 개인정보 보호 인식 등의 국가별 점수를 측정
- 2024년 한국 50점: 디지털 습관 50점, 위험 수용성 45점, 개인정보보호인식 57점
2023년 한국 46점(디지털 습관 36점, 위험 수용성 49점, 개인정보보호인식 50점)보다는 개선
글로벌 평균 점수(58점) 대비 하회, 미국(59점), 독일(60점) 대비 큰 폭 하회, 중국보다도 낮은 Score
- 한국 참여자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항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문제(정답비율 3%)
홈 Wi-Fi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방법(8%)
→ AI 및 네트워크 비중 확대 트렌드에 대응 미흡

[차트24] 2021~2024년 국가별 사이버 보안 인식 테스트



자료: 노드VP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5] 한국 참여자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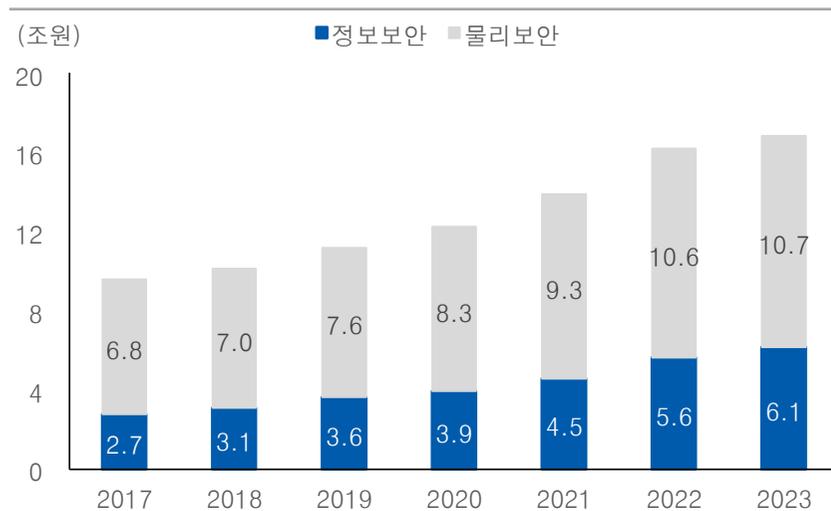


자료: 노드VP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②기업: 글로벌 경쟁력 부족

- 내수 성장 VS. 수출 역성장 →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 밸류에이션 하향 요인으로 작용
- 20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액 16.8조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
 정보보안 6.1조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 vs. 물리보안 10.7조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정보보안: 네트워크 보안 전년대비 19.5% 성장 vs. 플랫폼보안, 공동인프라 등은 역성장
 물리보안: 보안용 카메라, 보안용 저장장치, 출입통제 장비 성장
- 2023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수출액 1.68조원으로 전년대비 16.3% 감소
 정보보안-네트워크 보안 역성장 / 물리보안-보안용 카메라, 보안용 저장장치, 출입통제 모두 감소
- 2023년 전체 종사자도 전년대비 7.0% 감소: 정보보안 종사자수 전년대비 4.1% 증가 vs. 물리보안 종사자 13.1% 감소

[차트26]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추이(연도별)



자료: KIS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7] 국내 정보보호산업 수출액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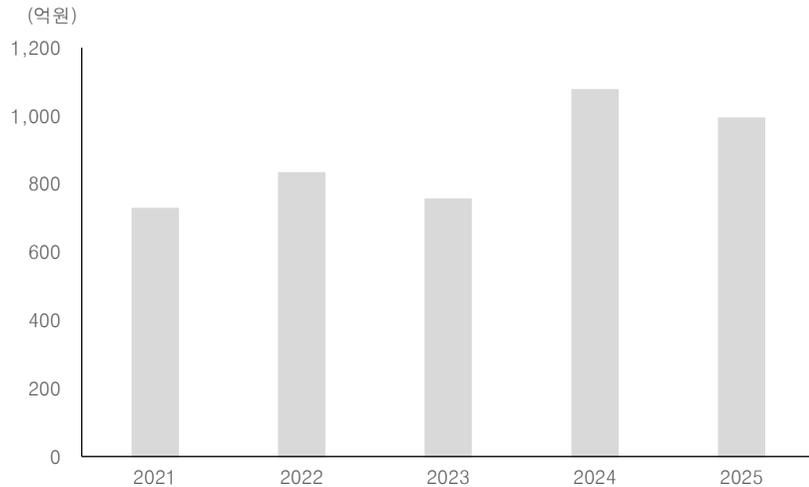


자료: KIS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③ 정부 예산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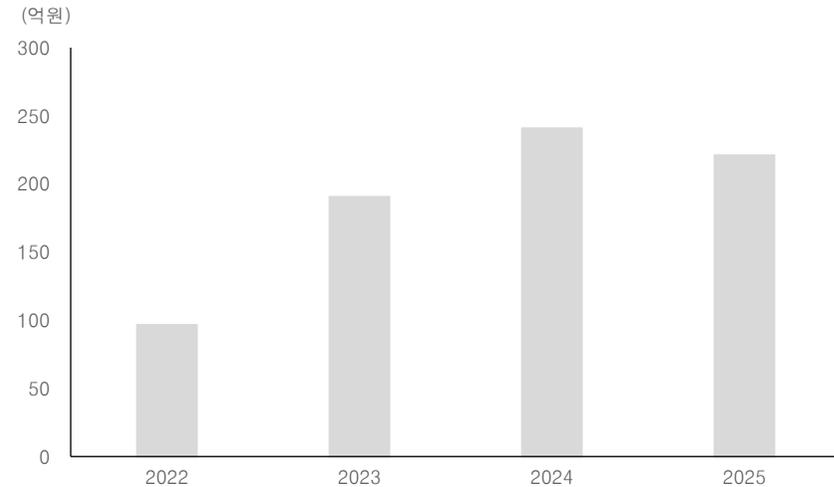
-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 2025년 1,049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소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 예산 2024년 1,076억원 → 2025년 993억원
 사이버보안 챌린지 선도기술 개발 &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예산 제외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예산 감소: 2024년 241.0억원 → 2025년 221.2억원
 암호화 사이버 위협대응 기술개발은 상승: 2024년 20억원 → 2025년 31.5억원

[차트28] 사이버 보안 관련 연도별 예산: 2025년 전년대비 삭감



자료: 과기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9]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예산



자료: KIS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V. 2025년 SKT 사태 이후 달라진 양상

- 4/29일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 발표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5대 서버들을 조사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에 등을 조사, 악성코드 4종 발견 vs.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부재
- 5/19일 SKT 침해사고 2차 조사결과 발표
1차 발표 이후 공격 정황이 있는 서버 18대 추가(5대→23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및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 5/1일 과기부, SKT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 위해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
1)국민입장에서 쉽게 설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2)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유심 물량공급 안정화시까지 신규모집 전면 중단
3)보상방안 설명, 4)이용자 피해 보상방안 마련 및 이행, 4)장애발생시 즉각적 상황공유 및 신속한 복구, 5)지원인력 대폭 확대
- 5/8일 과기부, 제조업·에너지·통신 분야를 비롯해 금융기관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국내 기업 6천여곳에 SKT 서버에 발견된 악성코드 12종에 대한 보안검사 &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 강화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
- 5/21일 입법조사처, 향후 개선 위해 3개의 과제 제시 1)정보보호 투자 확대, 2)인증제도 실효성 제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검토 강화
- 5/23일 SKT, 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진행, 향후 대응 방안 제시
1)통신장비 백신설치를 기본으로 진행, 하지만 민감도 높아 망 안정성을 고려해 EDR 설치 확대
2)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으로 불법인증 시도 차단 서비스 제공
3)모의해킹 추진
- 8/14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랜섬웨어 감염 사고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안강화 4가지 수칙 제시
1)주요시스템의 외부 접속 관리 강화, 2)복잡한 PW 설정, 정기적인 변경, 다중인증 등을 통한 중앙 시스템 계정 관리 강화,
3)공용 네트워크 사용자 복잡한 PW 설정, 인터넷을 통한 직접접속 지양, 접속 가능한 IP 및 계정 권한 최소화
4)모의훈련을 통해 Back Up 관리와 복구 체계 검증
- 8/21일 금융감독원, 즉각적 보안 통제 강화 필요 → 하반기부터 랜섬웨어 등 금융권 사이버 위협 관련 대응 체계 점검할 예정
VPN 등 외부접속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 및 복구 체계 강화

스몰캡



권명준

02 3770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투자 의견	Not Rated (M)
목표주가	- 원 (M)
현재주가 (10/1)	25,35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2,302억원
총발행주식수	9,079,60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3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55,895주
52주 고/저	28,800원 / 8,900원
외인지분율	27.17%
배당수익률	0.99%
주요주주	이동범 외 2 인 39.32%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33.4	14.4	157.9
상대	23.9	6.1	133.0
절대 (달러환산)	32.5	10.6	140.4

지니언스(263860): 사이버 보안의 기본은 EDR

-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제시될 예정
→사이버 보안 규제 or 권고사항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
- 사이버 보안의 기본옵션은 EDR과 백신
국내 EDR 1위 기업으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
백신 산업 진출 통해 EDR과 백신 결합 서비스 제공 가능
- 2026년이후 국내 ZT(Zero Trust) 산업 개화 기대
주력제품인 NAC(국내 1위)와 EDR(국내 최다 고객 보유) 수혜 전망
- 적용범위 확대 위해 구독형태 서비스 제공
- 글로벌 진출 확장도 ing

Forecasts and Valuation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계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319	385	429	496
증가율	19.0	20.7	11.4	15.6
영업이익	59	69	65	98
영업이익률	18.5	17.9	15.2	19.8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62	71	62	109
지배주주 귀속 EPS	757	661	1,165	0
EPS증가율	15.7	-12.7	76.2	-100.0
PER	12.2	12.2	17.8	9.4
PBR	1.7	1.7	2.0	1.7
EV/EBITDA	8.3	7.0	11.3	6.2
ROA	12.8	12.7	10.1	16.4
ROE	16.2	16.1	12.7	20.3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Diagnosis: 치료보다 진단



I. Why 2026

- 2026 식약처 예산안 전년대비(7,489억원) 8.4% 증가한 8,122억원 편성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확충內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에 맞춰 50억원의 예산 편성
 → 제품의 유효성과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사업 추진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 2026년 1월 시행
 규제 자율화 →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술혁신 투자 유인 강화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림1] 2026년 식약처 예산 8,122억원(전년대비 8.4% 증가)



자료: 식약처,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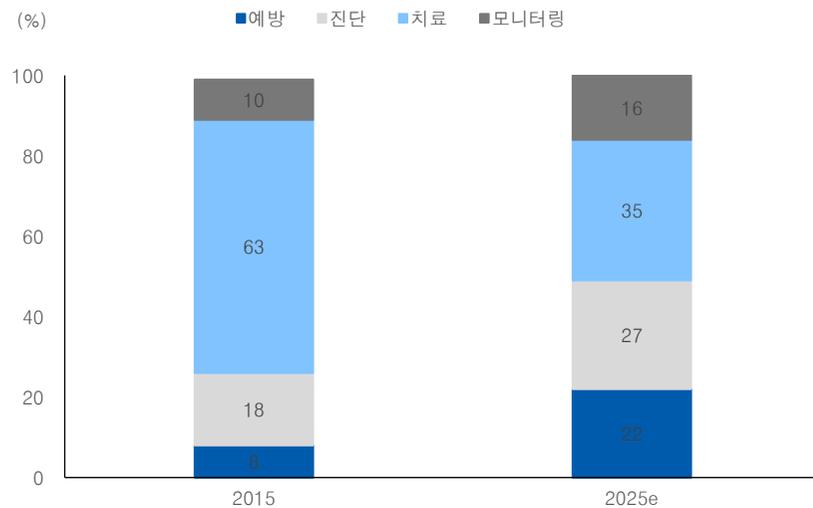
개정항목	주요 변경/신설 내용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수료 현실화	허가 수수료 수준 조정 및 감면 근거 규정 신설
품질책임자 자격 증빙 간소화	품질책임자 재취업/이직시 기존 제출한 자격증명자료 반복제출 면제규정 신설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의무화	외장 또는 용기에 개봉후 사용기간 기재 의무 지정
임상적 성능시험 관련 규제 보안	비임상시험기관 참여 필요시 임상시험기관 관리하 진행토록 규정 강화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 위탁 규정 마련	인증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조건 정비	감면 근거 신설 및 일정 조건하에 가능 규정 정비

자료: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체외진단

- 체외진단(In Vitro Diagnostic, IVD):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조직·혈액·침·소변 등 인체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하여 몸 밖에서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예측-모니터링하는 기술
-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점진적인 성장 전망
- 체외진단: 중앙집중식 테스트, 주변기기 테스트, 분산 테스트로 구분
 - 중앙집중식 테스트: 임상화학 및 면역분석, 혈액학, 분자진단 등
 - 주변기기 테스트: 조직진단, 미생물학, 소변검사 등
 - 분산 테스트: 현장진단, 자가 모니터링 혈당테스트 등

[차트31] 글로벌 헬스케어 영역별 비중



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2] 체외진단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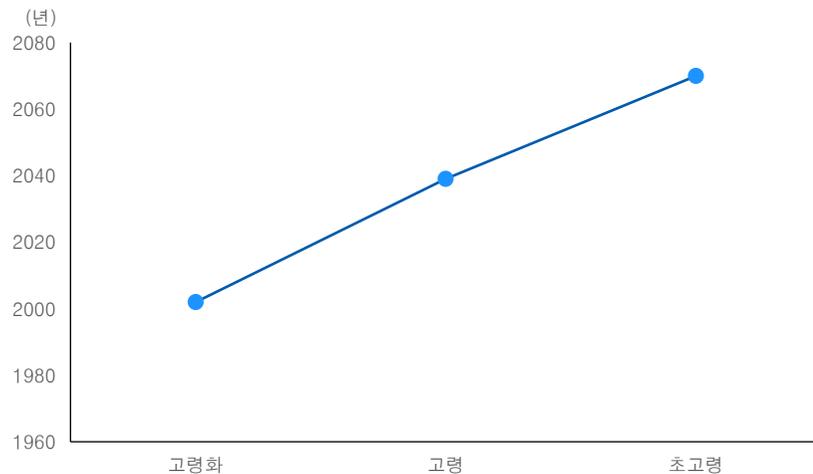


자료: Frost&Sulliva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체외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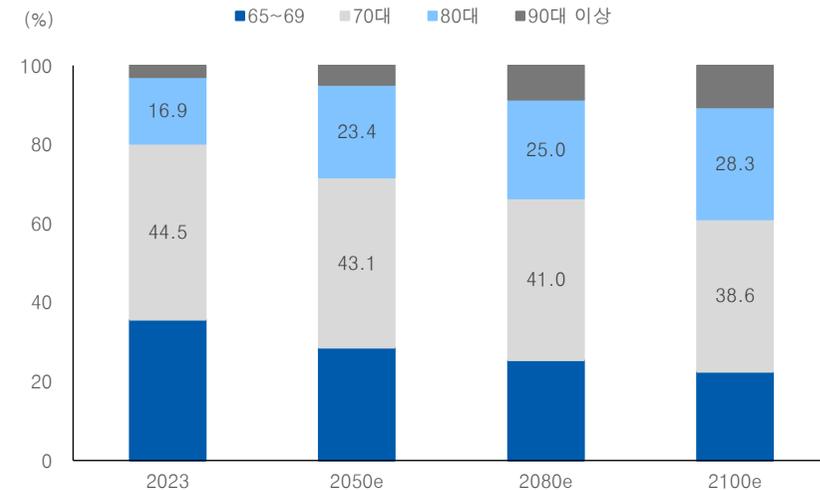
-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 치료보다 예방
패러다임 변화: 과거의 진단-질병발생시 치료를 위한 준비 vs. 현재의 진단-건강 이상을 확인하는 예방의 수단
- 진단이 필요한 이유
국가: 인구 고령화 → 의료 관련 복지 비용 증가 → 진단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 발생
개인: Well aging을 위한 건강 관리
- 세계보건기구(WHO), 진단검사에 대한 투자 1% 증가시 전체 보건의료비용 5% 절감 효과

[차트33] 글로벌 고령화 단계 진입 시점



자료: U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4] 글로벌 65세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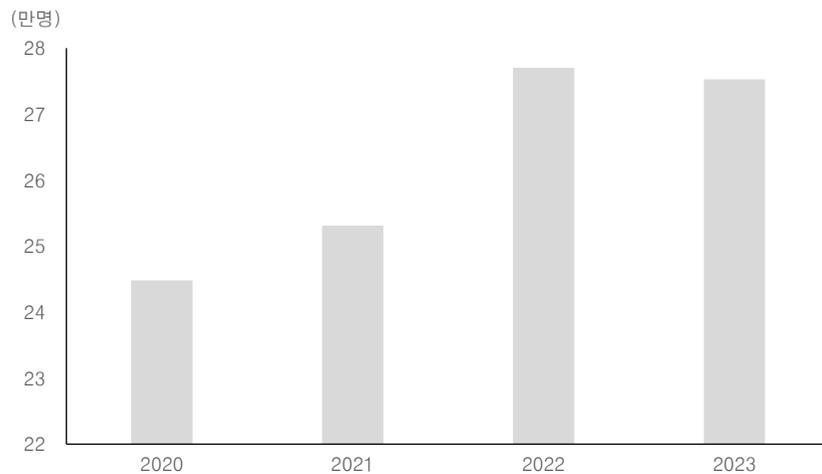


자료: U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체외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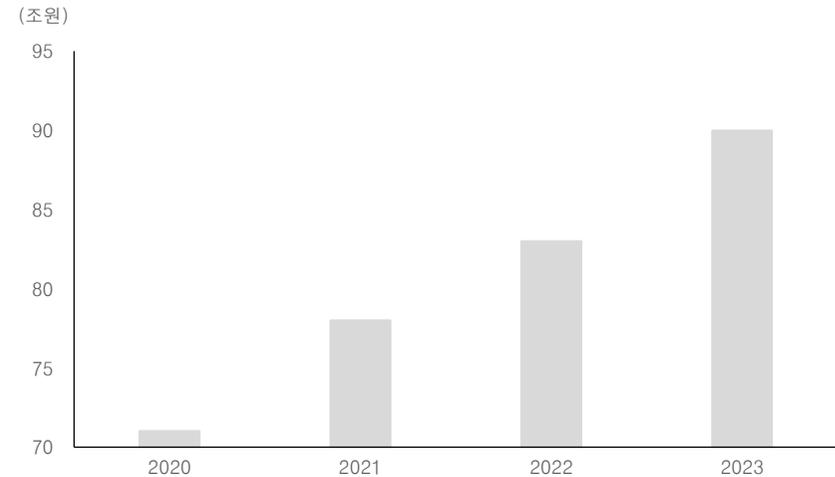
- 체외진단이 주목받는 이유: 만성질환자수 증가
- 만성질환: 질병의 원인 및 발생 시점 불명확 →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 치료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완치가 어려움
- 미국 보건복지부(2019년), 미국 성인 60% 만성질환 보유, 40%는 2가지 이상 만성질환 보유, 2022년 기준 미국 성인의 11%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
- 국내 질병관리청(2023년), 국내 전체 사망자수의 78.1%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망(주요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암, 치매 등)
- 고령화 추세로 인해 만성질환에 따른 진료비 증가 추세
2023년 기준 국내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에 해당

[차트35] 국내 만성질환 사망자수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6] 국내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권명준

02 3770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투자 의견	Not Rated (M)
목표주가	- 원 (M)
현재주가 (10/1)	14,70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2,133억원
총발행주식수	14,509,416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5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27,300주
52주 고/저	23,050원 / 9,890원
외인지분율	1.69%
배당수익률	3.40%
주요주주	오상 외 6 인 56.18%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6.5)	(22.2)	15.5
상대	(13.2)	(27.9)	4.3
절대 (달려환산)	(7.2)	(24.8)	7.6

오상헬스케어(036220): 추위를 반기며...

- 콤보키트 수요 확대 전망
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 A, B를 동시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 올해초 501K 정식 승인 취득
3Q25 반자동화라인을 자동화로 변경 → CAPA Up & 수익성 개선 효과 기대
- 연속혈당측정기
Allez Health 지분투자 통해 최대주주 → FDA 인상 추진 중 → 승인 이후 판매 기대
Allez Health: 최첨단 혈당측정기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출시한 경험 보유한 텍스컴 출신들이 설립
- 현장분자진단기기
美 크립토스 바이오테크에 지분투자
빛으로 열을 발생, 정밀하게 제어하는 광열PCR 기술을 최초 적용한 현장분자진단기기 미국 임상 시작
→유전자 증폭 과정 시간 단축 통해 20~30분내 현장에서 결과 확인 가능
2026년내 FDA 승인 목표

Forecasts and Valuation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1,323	1,939	3,558	805
증가율	-	46.6	83.5	-77.4
영업이익	-71	493	1,428	-248
영업이익률	-5.4	25.4	40.1	-30.8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15	406	1,164	-114
지배주주 귀속 EPS	3,120	8,800	-799	0
EPS증가율	2,636.8	182.1	-109.1	-100.0
PER	-	-	-	-18.5
PBR	-	-	-	0.7
EV/EBITDA	19.8	-1.1	-1.0	-11.5
ROA	1.5	18.5	40.9	-3.7
ROE	1.6	21.5	47.2	-3.9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S: 본격적인 시작!



I. Why 2026

-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1조원 규모의 ESS
 - 2025년 10월 ESS 중앙계약시장 2차 입찰공고 → 연말 ESS 사업 선정 결과 발표 예상
 - 예상규모: 1차와 동일한 540MW 규모(육지 500MW+제주 40MW)
 - 1차 사업: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80% 수주(8곳 중 6곳) / LG에너지솔루션(제주 표선, 전남 광양) / Skon 수주 無
- 국내 2차전지 배터리 3사의 ESS용 배터리 양산 및 판매 본격화 공장

[차트37] 2차 ESS 중앙계약시장 개요

사업규모	약 1조원 총 540MW규모(육지 500MW+제주 40MW)
공급 시기	2027년 12월
계약 기간	15년
입찰 방식	최적 방식은 유지, 가격평가 배점 등은 조정 가능성 有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8] 국내 배터리 3사의 ES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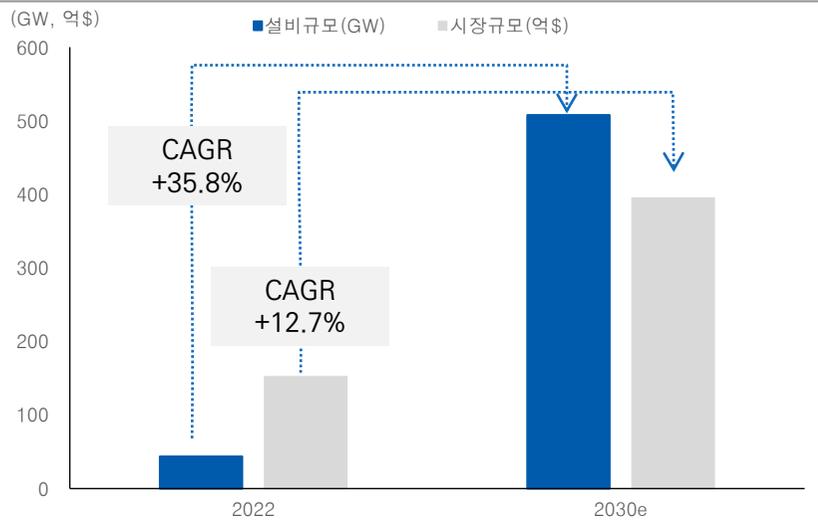
삼성SDI	4Q25 미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일부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양산
LG에너지솔루션	2Q25이후 美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배터리 양산 시작 2026년 스텔란티스 합작공장에서 LFP 배터리 생산 시작E
SK온	美 조지아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 통해 생산 시작 예정

자료: 언론보도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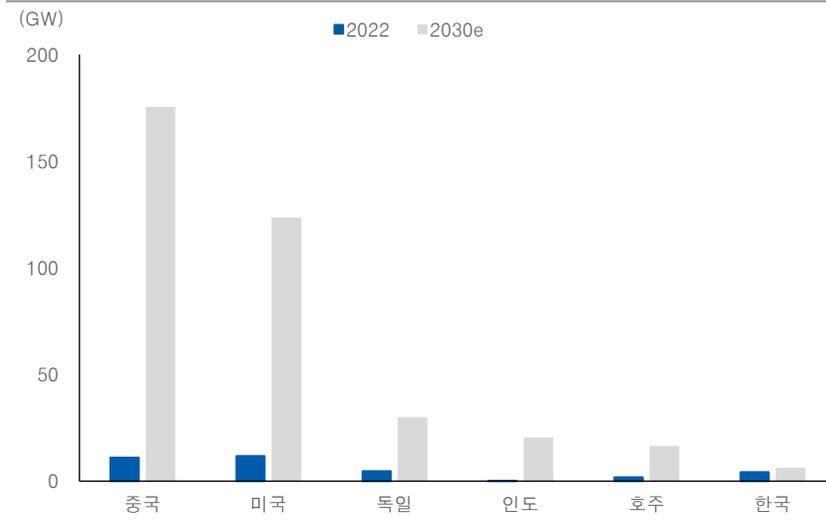
-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대응한 ESS 보급 확대 → 글로벌 ESS 설비 및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ESS 설비규모(By BNEF): 2022년 43.8GW→2030년 508GW으로 10배 이상 성장 전망
시장규모: 2022년 152억달러→ 2030년 395억달러로 증가 전망
- 국가: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ESS 보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주요 선진국내 보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美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미국 ESS 시장 규모 2024년 1,067억달러→2032년 2,635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 전망 (By 글로벌마켓인사이트)
- 용도: 에너지이동용 증가(2022년 54% → 2030년 60%) VS. 주거용 감소(2022년 23%→ 2030년 14%)
- 기술: 리튬전지 기반이 95% 이상을 차지, 향후 LFP 전지 기반의 ESS 보급확대 전망

[차트39] 글로벌 ESS 설비규모&시장규모 전망



자료: BNEF, 산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0] 국가별 ESS 보급량 전망



자료: BNEF, 산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ESS

- 주요국 ESS 보급 확대 위해 설치의무화, 보조금, 전력시장 참여 유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①미국: 10년 이내 10시간 이상 총방전가능한 ESS의 균등화저장비용 90% 인하
 - ②중국: 2025년까지 설비규모 30GW 이상, ESS 비용 30% 감축 목표
 - ③일본: 2030년까지 배터리 국내 연간 제조능력 150GWh,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배터리 제조능력 600GWh로 확대
 - ④유럽: ESS의 수익성 확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⑤호주: 주거용 ESS 위주 보급 중, 향후 유틸리티급 ESS 시장 급성장 전망
 - ⑥인도: 2032년까지 51~84GW 규모의 ESS 설치 계획

[차트41] 주요국 ESS 지원정책 현황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인도
설치의무화	O	O	X	X	X	O
보조금 지급	O	O	O	O	O	O
전력시장 참여	O	-	△	△	△	△

자료: 산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차트42] 주요국 ESS 지원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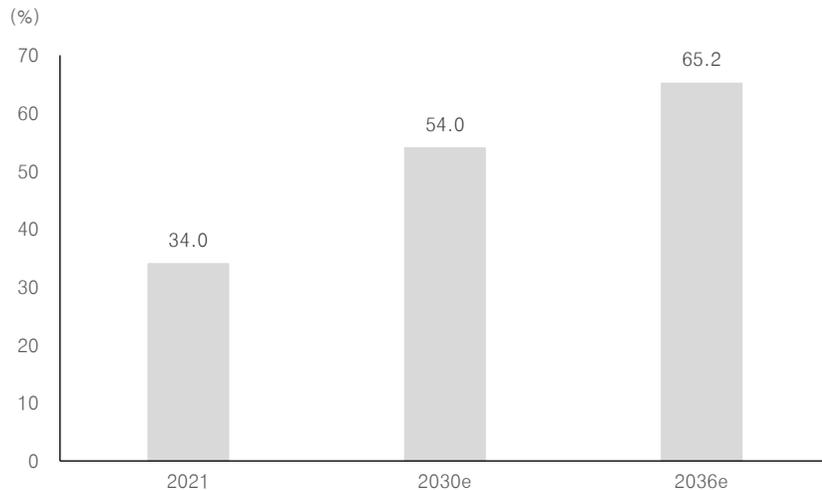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인도
설치 의무화	캘리포니아 등 5개주 ESS 설치 의무화	신규 유틸리티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ESS 연계 의무화	-	-	-	전체 전력수요 4%를 ESS로 충당 (~2030)
보조금 지급	ITC 통해 ESS설치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최대 60%)	설비기준을 충족하는 ESS 설비에 대해 보조금 지급	설비기준 충족하는 ESS설비 보조금 지급	태양광 연계 ESS 설치보조금 지급	주거용 ESS 보조금 지급	대형 ESS 프로젝트 수행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전력시장 참여	ESS의 전력도매 시장참여 지침 마련	-	ESS 용량시장 참여 가능	ESS 주파수 시장 참여 가능	주파수 시장 통해 ESS 설비 수익 창출	주파수 시장참여 대상 ESS 설비 포함 (21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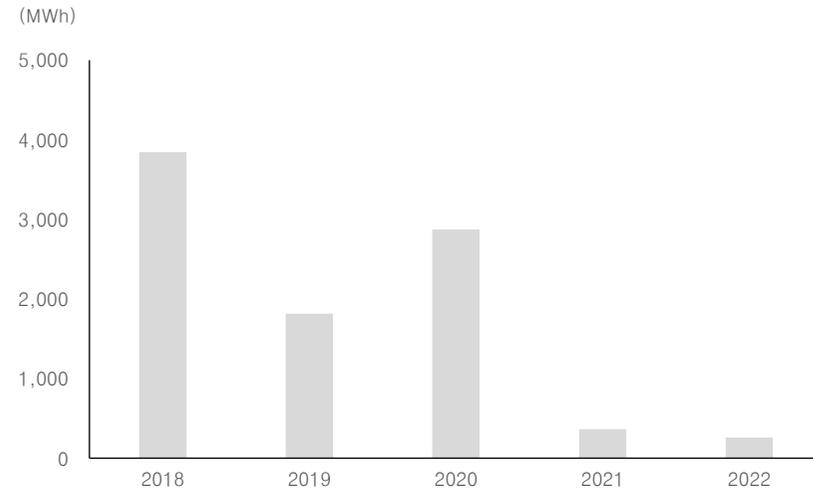
- 韓,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원전 등 경직성 전원 증가(신재생+원전, 21년 34%→30년 54%→36년 65.2%)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성을 ESS보급을 통해 완화
- 국내 ESS 설치 규모 : 2018년 3,836MWh → 2020년 2,866MWh → 2022년 252MWh으로 글로벌과 상반
 17년 이후 잇따른 화재사건 발생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REC 가중치 부여, 충전요금할인, 설치비 지원 등 보급정책 축소
- 미국 관세: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40.9% 관세 부과 → 2026년 58.4%로 상향

[차트43] 경직성 전원(신재생+원전) 비중 증가



자료: 산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4] 화재 사건, 지원제도 일몰 등으로 국내 ESS 설치 위축



자료: 산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국내 주요기업 ESS 동향

- 삼성SDI 최근 수주 동향

2021년 미국 텍사스주 ESS 프로젝트: 전력망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연동 목적

2025년 2월, 가격경쟁력 있는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 7~8월 생산설비 설치 완료

2025년 3월, 美 넥스트라에너지에 ESS 배터리 공급(3억 100만달러, 6.3GWh 배터리 공급) 계약 조율 중

2025년 6월, 獨 상업용 ESS 전문 제조업체인 테스볼트와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

자사의 일체형 배터리 제품 SBB(Samsung Battery Box)+전력변환장치+사이버 보안시스템

4Q25, 美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양산

- LG에너지솔루션 최근 수주 동향

2024년 12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 체결. 2026년 공급 시작 예정

2Q25이후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시작. 2026년 캐나다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에서도 LFP배터리 생산 시작할 예정

2025년 7월, 미국 DESRI(신재생) 추진하는 뉴멕시코주 산타 테레사 프로젝트 핵심 공급사로 참여. 태양광 발전(150MW)와 600MWh급 ESS 연계사업

2025년 8월, 테슬라(추정)와 43.1억달러 규모(40~50GWh) 배터리 셀 공급계약 체결-美 정부의 중국산 배터리 사용 금지 조치로 인해 중국 CATL의 물량을 이전

- SKon 최근 수주 동향

2025년 9월, 美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1GWh 규모 ESS 공급계약 체결

-LFP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부터 공급,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확보

2026년, 美 조지아 공장의 일부 라인을 전기차용에서 ESS용으로 전환 통해 생산 시작할 예정

스몰캡

권명준



02 3770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투자의견	Not Rated (M)
목표주가	- 원 (M)
현재주가 (10/1)	33,55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3,033억원
총발행주식수	9,039,778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60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44,867주
52주 고/저	51,800원 / 22,350원
외인지분율	3.51%
배당수익률	0.6%
주요주주	신성델타테크 외 7 인 44.12%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1.6)	11.8	16.3
상대	(8.6)	3.7	5.1
절대 (달러환산)	(2.3)	8.1	8.4

신성에스티(416180): 미국 공장은 ESS!

- EV에서 ESS로의 전환 중
기존 주력제품: 부스바(배터리 전류 연결)와 배터리 보호용 모듈 케이스
향후 예상주력제품: ESS 수냉식 열관리(Heat Sink), ESS 컨테이너
- 미국 켄터키 1공장 구축 중
430억원을 투입해 ESS 수냉식 열관리 부품 양산 라인 구축
이르면 연내 본격적인 제품 양산 시작
LGES 수주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 고객사 확대 추진 ing
ESS Heat Sink 뿐 아니라 ESS 컨테이너 제조 가능
미 현지 공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 보유

Forecasts and Valuation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425	1,065	1,247	1,270
증가율	-0.2	150.6	17.1	1.8
영업이익	26	79	84	88
영업이익률	6.1	7.4	6.7	6.9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68	93	91	71
지배주주 귀속 EPS	1,326	1,223	786	0
EPS증가율	4.2	-7.8	-35.7	-100.0
PER	0.0	0.0	20.3	41.1
PBR	0.0	0.0	2.3	2.8
EV/EBITDA	3.9	1.9	16.3	20.0
ROA	13.9	21.6	8.2	5.1
ROE	28.6	51.0	13.6	7.1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oldable: 드디어 Apple이 온다!



I. Why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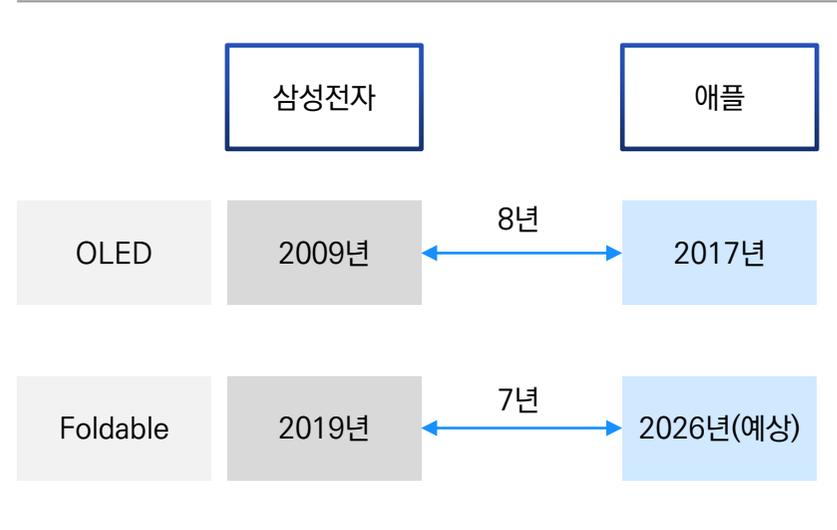
- Apple은 Smartphone내 OLED 채택 이후 H/W의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이유1. 멀티가 되지 않는 애플: Apple은 OLED iPhone 이후 VR에 집중
2008년 VR기기에 대한 특허 출원→2015년 독일 Metaio 인수(AR기업) → 2017년 Vrvana 인수(HMD 기술 확보) → 2023년 Apple Vision Pro 출시
- 이유2. 완벽함을 추구하는 애플
기존 폴더블폰들이 (외장)힌지 내구성 및 주름에 대한 문제 발생 → 애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
Multi Tasking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한 경험 부재
- 이유3. 시장 성숙기를 기다린 애플
OLED 채택시점: 삼성전자 2009년(2010년 이후 Super AMOLED 시작) VS. 애플 2017년(2020년 이후 플래그십 전면 OLED 채택)

[차트45] iPhone 폴더블 예상 모형



자료: 각 언론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6] OLED 채택과 유사한 폴더블 채택(예상)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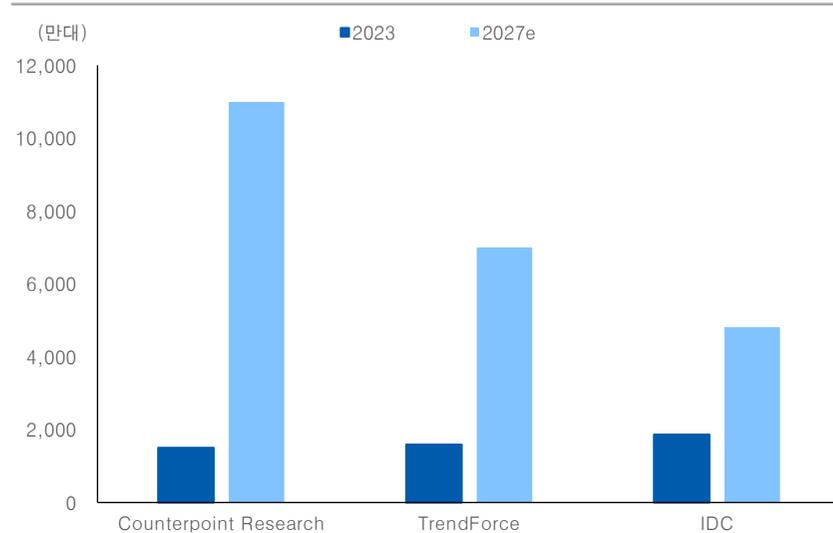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 Why 2026

- 폴더블 스마트폰: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 기업 중심으로 시장 성장 → 2H26년 애플 폴더블폰 출시 이후 성장속도 확대 전망
 Counterpoint Research: 2023년 1,500만대→2027년 11,000만대(CAGR +64.6%) 예상
 TrendForce: 2023년 1,590만대→2027년 7,000만대(CAGR +44.9%) 예상
 IDC: 2023년 1,860만대→2027년 4,810만대(CAGR +26.8%) 예상
-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 배경
 - 1)기술의 발전: 주름 현상 완화
 - 2)가격 하락: 규모의 경제 효과 및 경쟁 확대
 - 3)사용자 편의: Multi Tasking 용이

[차트47] 폴더블 스마트폰 전망



자료: Counterpoint Research, Trendforce, ID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8] 폴더블 스마트폰 성장 배경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Foldable iPhone

- OLED 1년차 대결: 애플 아이폰 >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OLED 첫 제품인 아이폰X의 1년간 판매량은 6,000만대 이상으로 추정
 삼성 갤럭시 S8와 S8+ 합산 판매량은 4,000만대 내외로 추정

[차트49] 애플 VS. 삼성 VS. 화웨이 폴더블 스마트폰 스펙 비교

구분	애플 아이폰X(2017)		삼성 갤럭시 S8
디스플레이	OLED	=	AMOLED
카메라	후면2개+전면 1개	=	후면 2개+전면 1개
화면	5.8인치	≤	5.8인치(S8) / 6.2인치(S8+)
생체인식	Face ID(Touch ID 제거)		지문인식
운영체제	iOS 11		Android 7.0
가격	999\$(64GB), 1,149\$(256GB)	<	720~750\$(S8) / 840~850\$(S8+)
배터리	2,716mAh	<	3,000mAh(S8) / 3,500mAh(S8+)
두께	7.7mm	>	8.0mm(S8) / 8.1mm(S8+)
무게	174g	<	155g(S8) / 173g(S8+)
판매량	6,300만대(18.8월 기준)	>	4,000만대 내외(S와 S+합산)

자료: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Foldable iPhone

- 삼성 & 화웨이 폴드형태 폴더블 스마트폰과의 비교
 -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 메이트 X6와 중간 SPEC
 - 차별화: 터치ID를 채택할 가능성 존재
 - 비교열위: 화면 크기(외부 1.0인치, 내부 0.1~0.2인치 작음), 가격경쟁력

[차트50] 애플 VS. 삼성 VS. 화웨이 폴더블 스마트폰 스펙 비교

구분	애플 폴더블 아이폰	삼성 갤럭시Z 폴드7	화웨이 메이트 X6
화면	내부화면: 7.8인치 외부화면: 5.5인치	내부화면: 8.0인치 외부화면 6.5인치	내부화면: 7.9인치 외부화면 6.5인치
카메라	총 4개 후면 2개+전면1개+내부1개	총 5개 후면 3개+전면1개+내부1개	총 6개 후면 4개+전면1개+내부1개
생체인식	Face ID or Touch ID	Face ID+Touch ID(측면)	Face ID+Touch ID(측면)
운영체제	iOS 27 기반 멀티태스킹 기능 탑재 예정	Android 16기반	EMUI 15.0
가격	1,999\$~2,500\$(E)	1,999\$ 이상	1,791\$ 이상
배터리	5,000~5,500mAh	4,400mAh	5,110mAh
두께	Unfold: 4.5~4.8mm Fold: 9.0~9.5mm	Unfold: 4.2mm Fold: 8.9mm	Unfold: 4.6mm Fold: 9.9mm
무게		약 215g	약 239g

자료: MacRumors, Phone Arena, 삼성전자, 화웨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Foldable iPhone 통해 영역 확장

- 폴더블 제품 라인업 확대 전망: 폴더블 아이폰 →폴더블 아이패드 →폴더블 노트북으로 확장
- 폴더블과 비전프로/Glass를 통해 2D와 3D의 혼합
폴더블 아이폰-상시, 2D VS. 비전프로/Glass-필요시, 3D

[그림2] 아이폰에서 아이패드 & 노트북으로 확장



자료: MacRumors, 아스트로패드, wccftte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D와 3D와의 결합 & 실내와 실외의 결합 = Always Apple



자료: MacRumors, 애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V. Foldable iPhone 관련 국내 기업

- 삼성디스플레이: 애플 폴더블 OLED 유력 기업
애플의 OLED 채택시 초기 삼성Display 독점적 공급
-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벤더사
중국/대만 경쟁사 존재하지만, Spec 및 기술 유출 및 안정적인 공급 이유로 국내 공급업체들이 초기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삼성스마트폰과 애플스마트폰내 OLED Spec이 2020년 이후 동일
애플 폴더블 아이폰에도 삼성 갤럭시폴드와 동일한 소재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차트51] 애플 폴더블폰에 납품 예상되는 부품기업

구분	기업명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
UTG	쇼트, 코닝
UTG가공	렌즈, 도우인시스, 유티아이
외장хин지	암페놀
내장хин지	파인앰텍, LY iTech
조립	팍스콘
카메라 모듈	LG이노텍
PCB/RFCB	삼성전기, 비에이치
보호필름	세경하이테크

자료: 언론보도 정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2] 애플 폴더블폰에 납품 예상되는 소재기업

소재	기업(M11~M14)
Red Dopant	UDC
Red Host	듀폰
Red Prime	덕산네오룩스, 듀폰
Green Dopant	UDC
Green Host	삼성SDI/LG화학/NSSC
Green Prime	머크, 덕산네오룩스, LT소재
Blue Dopant	SFC, 이데미츠코산
Blue Host	SFC
Blue Prime	이데미츠코산
A-ETL	솔루스첨단소재, LG화학
HTL	덕산네오룩스, 솔루스첨단소재

자료: MacRumors, 애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V. Foldable iPhone 관련 국내 기업(OLED 소재)

[차트53] OLED 소재 기업

구분	M11(2020-2022)		M12(2022-2024)		M13(2023-2024)		M14(2024-2025+)	
Red Dopant	UDC		UDC		UDC		UDC	
Red Host	듀폰		듀폰		듀폰		듀폰	
Red Prime	덕산네오룩스		듀폰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	
Green Dopant	UDC		UDC		UDC		UDC	
Green Host	NSSC	삼성SDI	삼성 SDI		삼성 SDI		LG화학	삼성SDI
Green Prime	Merck	덕산네오룩스	LT소재 Merck	덕산네오룩스	Merck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	
Blue Dopant	SFC/이데미츠코산		SFC		SFC		SFC	
Blue Host	SFC		SFC		SFC		SFC	
Blue Prime	이데미츠코산		이데미츠코산		이데미츠코산		이데미츠코산	
A-ETL	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		LG화학		LG화학	
HTL	덕산네오룩스	솔루스첨단소재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	

자료: 언론보도 정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권명준



02 3770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투자 의견	Not Rated (M)
목표주가	- 원 (M)
현재주가 (10/1)	11,34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4,268억원
총발행주식수	37,640,073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447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4,022,240주
52주 고/저	13,840원 / 3,835원
외인지분율	6.87%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홍성천 외 12 인 27.08%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4.1)	72.9	87.1
상대	(10.9)	60.3	69.1
절대 (달러환산)	(4.7)	67.0	74.4

파인애플(441270):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기대
2026년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크램헬, 대면적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경쟁사 존재하지만 레퍼런스 & CAPA 등을 고려시 높은 점유율(7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삼성 갤럭시F 판매 호조
판매 확대 & 폴드에 대한 수요 확대
폴드내 높은 점유율 보유 → 실적개선 기대
- 신규사업 준비 중
1Q25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관련 사업목적 추가
2026년 초도 매출 발생 기대

Forecasts and Valuation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계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	1,164	3,800	3,822
증가율	-	-	226.5	0.6
영업이익	-	54	203	-79
영업이익률	-	4.6	5.3	-2.1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	-75	105	-172
지배주주 귀속 EPS	-	299	-466	0
EPS증가율	-	-142.1	-255.9	-100.0
PER	-	-10.4	28.5	-16.7
PBR	-	2.1	2.1	2.1
EV/EBITDA	-	32.8	11.0	90.6
ROA	-	-5.5	3.7	-5.5
ROE	-	-13.3	8.0	-11.9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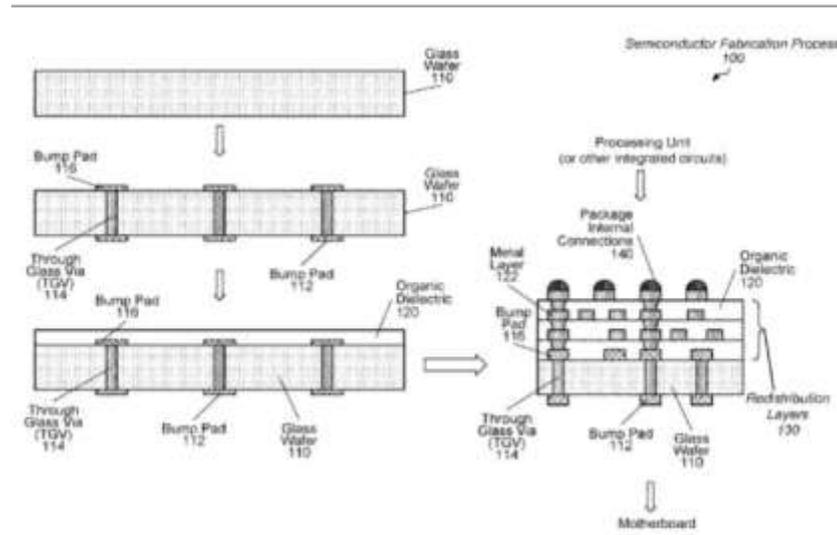
Glass Substrate: 시장 개화가 시작된다!



I. Why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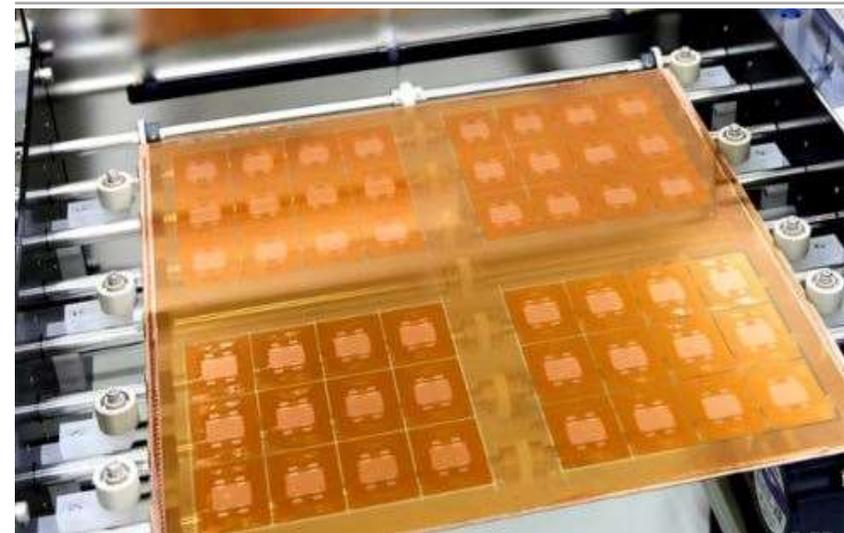
-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계 구축 예정
- AMD
2025~2026년 고성능 시스템인패키지(SiP)에 유리기판을 도입할 예정(By Tom's hardware, IFTLE)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용 EPYC 서버 프로세서, AI 가속기 등 다수의 칩렛이 집적되는 첨단 패키지의 생산비용 절감 & 성능 개선 전략
- 애플릭스(SKC 자회사)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와 품질 검증 진행
2025년말 본격적인 시험 생산에 돌입

[그림4] AMD 유리기판 특허



자료: AM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애플릭스 유리기판



자료: 애플릭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유리기판

- AI &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내 Chiplet 구조, HBM 결합 확대 → 대형 기판 & 고속 신호 전송 필요성 확대
기존 유기 기판의 한계점 도달 → 유리기판에 대한 필요성 확대
- 유리기판 VS. 실리콘 기판 VS. 유리기판
 - 1)유리기판: 대면적될수록 휨 현상 발생, 평탄화가 낮아 초미세패턴 구현의 한계 有, 발열시 변형 발생
 - 2)실리콘기판: 발열에도 소재 변형 ↓, 초미세 패터닝 가능, 전기적 특성 우수 vs. 라인 구축 비용 ↑, 사이즈 제약
 - 3)유리기판: 휨 현상 없이 대면적화 가능 & 초미세 회로 구현 가능, 발열에도 소재 변형 ↓ vs. 약한 기계적 강도

[차트54] 유기 vs. 실리콘 vs.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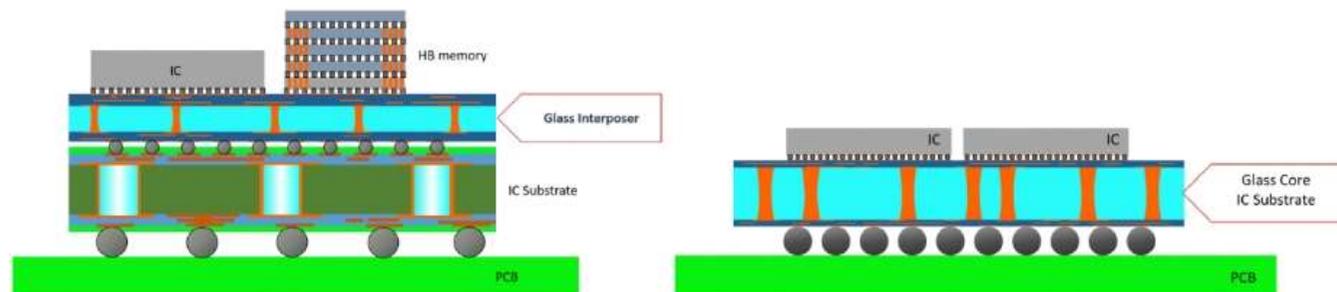
	실리콘	유기(적층)	유기(팬아웃)	유리
표면의 거칠기(nm)	10미만	400~600	1000이상	10미만
열팽창계수(ppm/K)	2.9~4.0	3~17	16~30	3~9
영률(소재의 유연함(GPa))	165	10~40	22	50~90
Mosture absorption	0	0.04%	1.0~2.5%	0
열전도율(W/m.K)	148	0.9	0.5~0.75	1.1
패키징 사이즈(mm)	35X35	70X70	50X50	100X100
웨이퍼/패널 사이즈	300mm	710mm ²	300mm/510mm ²	710mm ²

자료: PENN STATE CHIME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Why 유리기판

- 유리기판: 유리 인터포저와 유리 코어기판으로 구분
- 글래스 인터포저
 - 인터포저: 집적회로의 배선 연결을 도와주는 부품
 - 조달이 쉽지 않은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로 대체하는 목적: 실리콘 인터포저는 특성상 면적이 늘어나는데 한계 존재
 - 실리콘 웨이퍼는 원형 VS. 인터포저는 사각형 → 제조시 비효율적
- 코어기판
 - 기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코어 소재를 유리로 교체
 - 두께가 인터포저 대비 두꺼워 레이저 가공에 유리

[그림6] 유리 인터포저 VS 유리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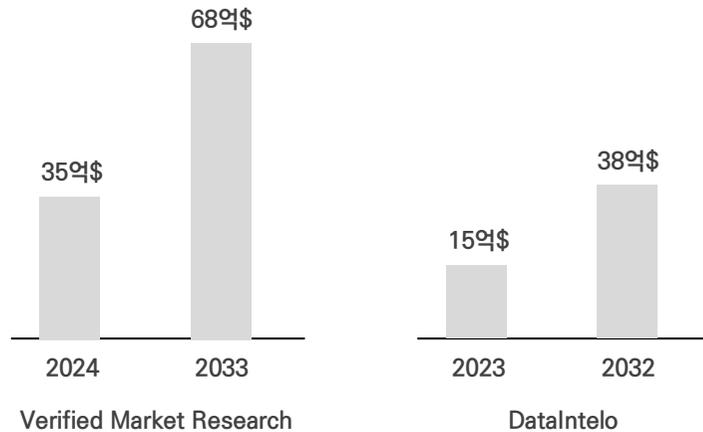
- Glass CTE \approx 3
- Typical thickness: 400 μ m
- Goal: replace costly large area silicon interposer
- Trend towards smaller diameter, thinner substrates
- Highest demand on reliability, cleanliness and process reliability

- Glass CTE \approx 7
- Typical thickness: 800 μ m
- Core layer must feature higher via densities than organic core to make an additional interposer obsolete

II. Why 유리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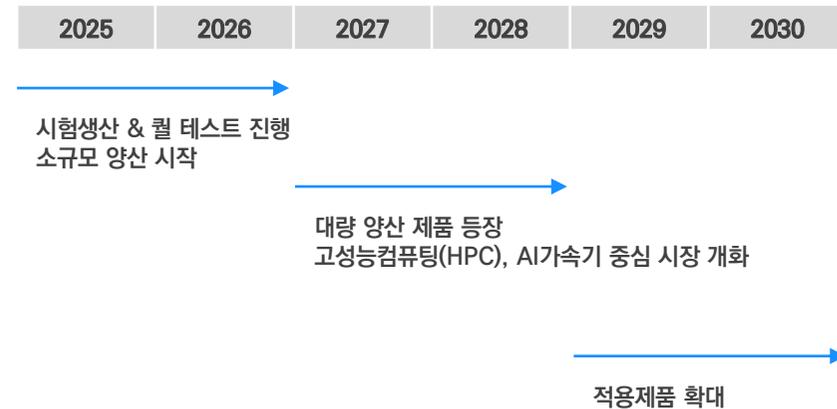
- 시장성장성
 Verified Market Research: 2024년 35억\$→2033e 68억\$ (연평균 8.7% 성장)
 DataIntel: 2023년 15억\$ → 2032년 38억\$ (연평균 12.3% 성장)
- 2026년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 기대
 2025~2026년: 시험생산 및 켈 테스트 진행, 이후 소량양산 체계 구축 및 판매 기대
 2027~2028년: 대량양산 제품 등장으로 본격적인 시장 성장 기대
 2029~2030년: 적용제품 확대

[차트55]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전망



자료: Verified Market Research, DataIntel,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6] 유리기판 적용 Time-Line



자료: Intel, 언론보도 정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유리기판 제조공정 및 관련기업

- 유리기판 제조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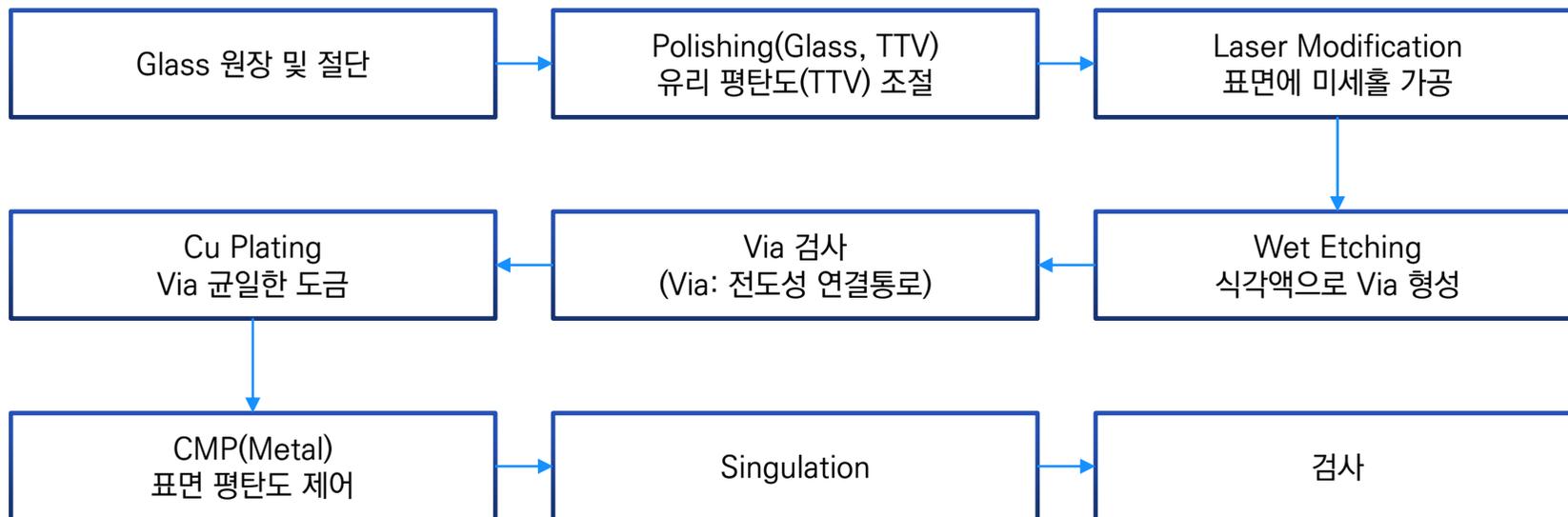
Glass: 유리 원장 및 절단 → 유리 평탄화

Hole: 레이저 장비 통한 홀 가공 → 식각액으로 Via 형성

Cu 도금: Via 균일 도금 → Layer 평탄화 작업

Singulation: 사이즈별 절단 → 검사

[차트57] 유리기판 제조 공정



자료: 필옵틱스, 켈트로닉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유리기판 제조공정 및 관련기업

[차트58] 유리기판 관련 기업

Glass	쇼츠(獨)	코닝(美)	아사히글라스(日)	다이닛폰프린팅	KCC글래스
TGV Laser	필옵틱스	LPKF(獨)	이오테크닉스	하나기술	
식각(공정)	켄트로닉스	솔브레인	에프엔에스전자(비)	에프엔에스테크(비)	
식각(장비)	APS	태성			
도금	와이씨캠	오성시스템(비)	Atotech	JCU	MacDermid Alpha
기타 장비	태성(에칭)	에스에프에이(드릴링)	나인테크(습식세정)	필옵틱스(드릴링, DI노광)	DMS(습식세정)
기판 패키징	애플릭스(SKC자회사)	삼성전기	TSMC	신코	Intel
	LG이노텍	삼성전자		이비덴	
검사장비	필옵틱스	인텍플러스	기가비스	HB테크놀러지	야스
	팜트론	이노메트리	자비스	아이비전웍스	쎌크

자료: 언론보도 취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V. 유리기판 관련기업 동향: 인텔

- 인텔 유리기판 투자 관련 상반된 의견 존재
- 조직개편과 비용절감 정책으로 최근 유리기판 R&D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2025.8월)
-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명(2025.9월)
유기 대신 유리기판 통해 AI 등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제조 목표, 2030년 이전 유리기판 도입 목표

[그림] 인텔



자료: PENN STATE CHIME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V. 유리기판 관련기업 동향: 애플릭스

- 2024
미국 조지아 공장 완공
- 1H25
1Q25 5,000만달러 차입 & 조지아공장내 설비 반입 시작
2Q25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4,000만달러(1차분, 총 7,500만달러) 수령
SKC 와 AMAT를 상대로 유상증자도 추진
- 2H25
2025S년 SKC 2,6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AMAT로부터 투자유치 추진 중
2025년 7월, 유리기판 Ramp-Up(생산량을 상당 규모로 늘려가는 작업) 추진
2H25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용 소재와 부품을 이전대비 60% 이상 확대 조달할 방침
- 2H25~1H26 CAPEX 투자 에 따른 장비 발주(PO) 예상
AMD와 아마존(AWS)등과 유리기판 공급 논의 중, 기초적인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프리퀄 단계 임박으로 추정

IV. 유리기판 관련기업 동향: 기타

- 삼성전기: 세종사업장내 파일럿 라인 구축, 올해 고객사 샘플 프로모션 진행할 예정
2027~2028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유리 코어기판과 유리 인터포저를 모두 개발
CES2024에서 유리기판 시장 진출을 공식화
국내 최초로 세종사업장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구축. 연내 시제품 생산을 시작 & 공격할 예정
- LG이노텍: CES2025에서 장비 투자를 진행, 올해말부터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혀
KPCA SHOW 2024에서 유리기판 시제품 관련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
2025년 유리기판 시생산 라인 구축에 공격적인 행보. 올해 10월에 유리기판 생산장비가 반입될 예정, 연말부터 자체 유리기판 개발 본격화할 예정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2027~2028년 상용화를 목표
실리콘 인터포저 대체용이 아닌 PCB코어에 유리를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
- 엔비디아
GPU의 발열 문제와 성능 개선을 위해 유리기판 도입하려는 행보
TSMC와 협력해 차세대 패키징 기술(FOPOP등)에 유리기판 적용을 검토
- 브로드컴
자사 반도체 칩에 유리기판 적용을 위한 성능 테스트 진행 중

스몰캡

권명준



02 3770 5587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투자 의견	Not Rated (M)
목표주가	- 원 (M)
현재주가 (10/1)	38,20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8,938억원
총발행주식수	23,402,747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93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272,448주
52주 고/저	53,300원 / 13,700원
외인지분율	0.41%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한기수 외 5 인 25.94%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28.8	3.0	88.6
상대	19.6	(4.5)	70.5
절대 (달러환산)	28.0	(0.5)	75.8

필옵틱스(161580): 고객사 확대

- 유리기판내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TGV, Singulation. 검사장비 등 다양한 유리기판 장비 라인업 보유
국내외 기업, 유리와 기판기업 등에 납품한 레퍼런스 보유
유리기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계 구축 예상 → 우선적인 선택옵션으로 작용 기대
-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비 보유
2026년 애플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진입
이에 따른 고객사향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발주 & 확대 기대
- 태양광
나노 미터급 레이저 대응이 가능한 미세 패터닝 및 전기적 단락 방지용 레이저 장비개발 완료
태양광 1세대, 2세대, 3세대, Tandem 모듈 등에 대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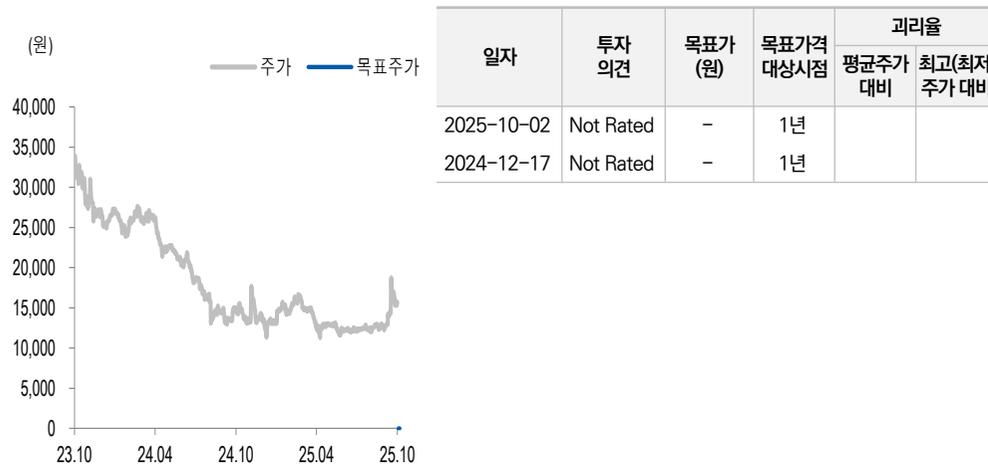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매출액	2,308	3,040	3,000	4,109
증가율	22.2	31.7	-1.3	37.0
영업이익	-105	181	103	138
영업이익률	-4.5	6.0	3.4	3.4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43	18	-80	56
지배주주 귀속 EPS	81	-353	244	-
EPS증가율	-138.9	-535.8	-169.1	-100.0
PER	-57.4	102.2	-28.1	76.8
PBR	2.7	1.9	1.4	2.8
EV/EBITDA	-81.4	12.7	13.3	23.6
ROA	-1.4	0.6	-2.1	1.3
ROE	-4.6	1.8	-6.2	3.5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코원테크 (28288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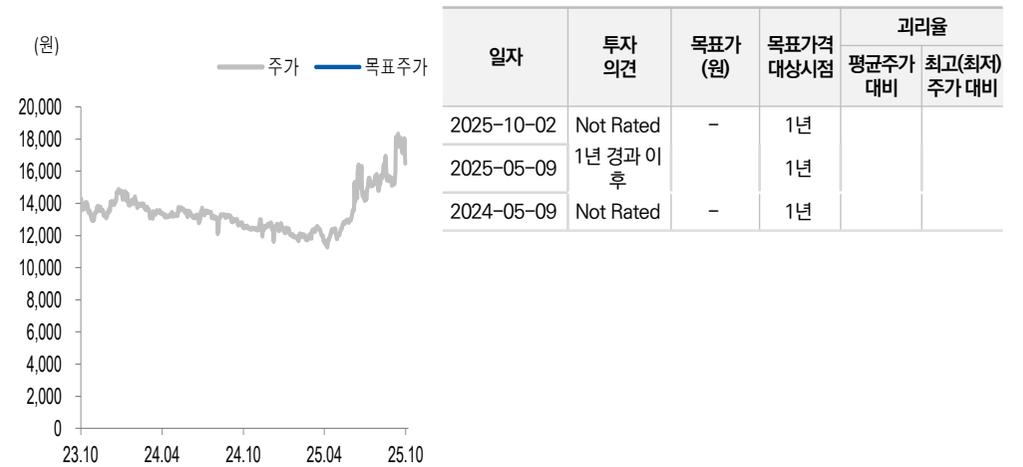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헤토이노베이션 (21418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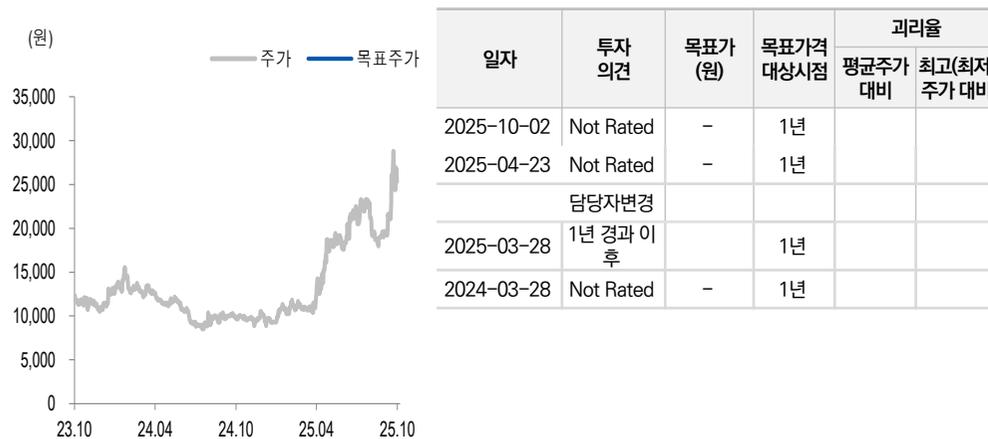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지니언스 (2638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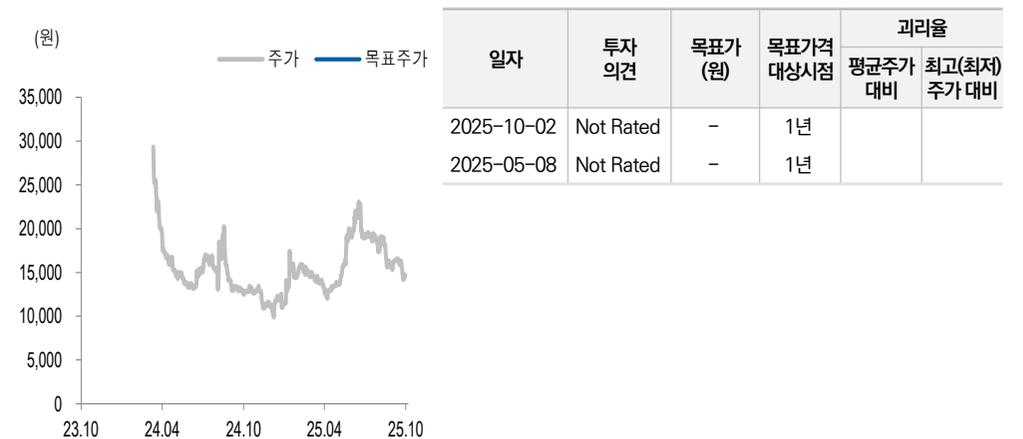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오상헬스케어 (0362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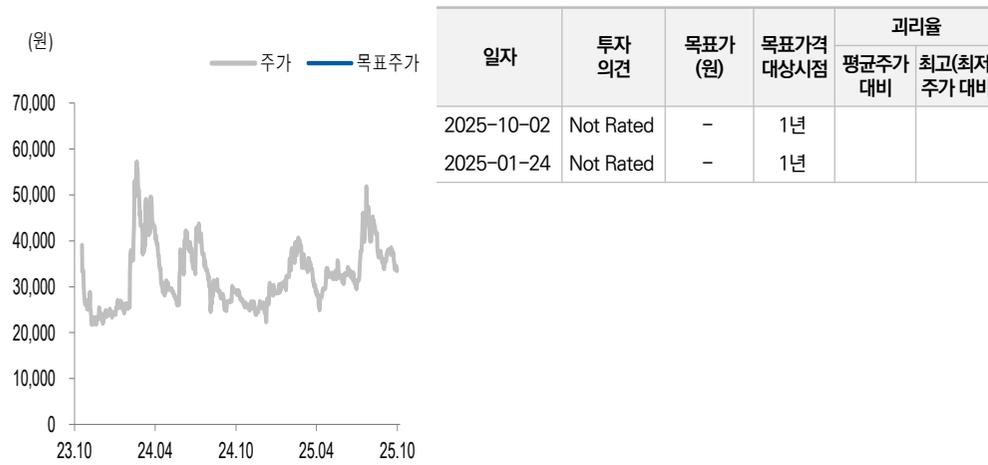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신성에스티 (41618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필옵틱스 (16158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파인애플 (4412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1
Hold(중립)	6.9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10-02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